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35 JULY 2011





Cover Story

여름 태양 아래, 나무는 가슴을 열고
온 힘을 다해 태양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In the summer sun,
leaves of trees have an open heart
to grab the all energy of sunbeams.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35 JULY 2011

발행인 이병훈

Publisher Bill Lee

발행처 남양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Namyang Company

편집 김민선

Editor Minsun Kim

디자인 디자인모루

Design by Design MORU

인쇄 정광인쇄(주)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ECO

- 04 **CEO 비전레터 CEO Vision Letter**
2011 핵심경쟁력 강화의 해
백년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Strengthening core competence for the year 2011
A new start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growth of Naturetech for more than 100 years
- 08 **전략 과제 실행 Initiatives for the Strategy**
전략운영의 가속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Must ceaselessly press on the accelerator to manage strategies
- 12 **자연오감 The Sense of Nature**
사랑의 철학
Love's Philosophy
- 14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친환경 약초원 조성 - 유니젠의 환경경영
Environmentally friendly herbal garde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gen
- 18 **자연의 선물 The Gifts of Nature**
자연의 지혜를 담다, 힐탑가든
Wisdom of nature, Hilltop Gardens
- 20 **에코넷의 농장 ECONET Farm**
세계 최고·최대의 알로에 농장, 알로콧 멕시코
The best aloe farm in the world; Aloecorp Mexico



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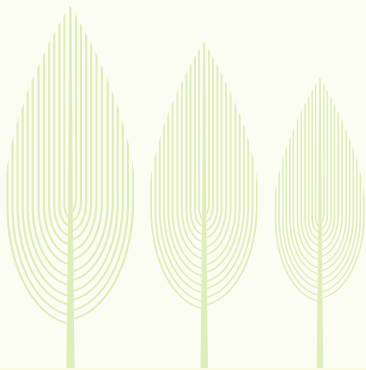
- 28 **특별 기획 Special Report**
4월은 에코넷 정신의 달 - 섬김과 나눔
USA ECONET Family of Companies Celebrate Spirit
Month & Founder's Day
- 34 **현장스케치 ① On the Scene**
혁신 2011 유니베라 리더전진대회
Innovative 2011 Leaders' convention of Univera
- 38 **현장스케치 ② On the Scene**
유니베라, 대륙 횡단 투어
Design Your Life 2011 Ocean to Ocean Tour
- 40 **현장스케치 ③ On the Scene**
에코넷 구성원 의견조사
ECONETian Opinion Survey
- 44 **성공이야기 Success Life**
우리의 유니베라 이야기
Our Univera Story

WAY

- 46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 Lives of fellow ECONETians**
TTS에서 Qmatrix까지
From TTS to Qmatrix
- 49 **에코넷 북클럽 ECONET Book Club**
상처 치유하기
Heal Wounds
- 52 **에코넷 명소 사진전 My favorite place of ECONET**
- 54 **에코넷 글마당 ① Literary Space**
내 추억 상자 속의 연 싸움
Kite runners in my memories
- 56 **에코넷 글마당 ② Literary Space**
'노라조의 안 노라조 등정기
Norazo's Earnest Mountain Climbing
- 58 **에코넷 뉴스 ECONET News**
- 74 **에코넷웨이 리뷰 ECONETWAY Review**
퀴즈
Quiz

2011 핵심경쟁력 강화의 해 백년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Strengthening core competence for the year 2011
A new start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growth of Naturetech
for more than 100 years



알로에 제품 제조 세계일등기업,
한국 식약청 GMP 적합업체,
한국 건강식품업계 최초 호주 식약청(TGA) GMP 인증업체,
미국 식약청(FDA) GMP 실사 합격업체,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품질 인증업체 및 14001 환경인증(10월 예정) 업체,
노동부 인증 식스시그마 모범업체!

World Best Aloe product manufacturer
GMP certification by Korean FDA
GMP certification by TGA of Australia as the first in the Korean dietary supplements industry
Passed inspection by USA FDA
ISO 9001 certification and 14001 environment certification
Six Sigma Model case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Korea



1990년 9월 진천 제1공장의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 간 에코넷의 도전정신이 이룩한 현재의 자랑스러운 네이처텍의 모습입니다. 올해 2011년은 '백년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그 전제조건인 '핵심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지속가능한 회사란 '다니고 싶은 회사, 거래하고 싶은 회사, 투자하고 싶은 회사'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 환경, 사회의 3대 축, 모든 기준에서 투자수익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으로 '생존부등식'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생존부등식=원가<가격<가치'입니다. 즉 원가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하고, 가격보다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등호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은 승승장구 하게 되며, 부등호가 거꾸로 되면 그 기업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것이 '생산효율성'입니다.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세계최초로 복사기를 개발한 미국의 제록스라는 회사는 상당 기간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성공에 안주하여 원가절감을 등한시한 결과 동일한 기능의 반값제품을 출시한 캐논의 도전에 밀리어 추락했고 결국은 일본 후지(사)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서 가격을 뺀 것을 '창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기술력과 제품개발력이 만들어낸 혁신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애플사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밤새 줄을 서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를 합니다. 이는 창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묵언의 존경의 표시라 생각됩니다.

둘째 조건은 고객 없이는 회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만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품을 강력히 추천하는 소비자의 수, 즉 순고객추천지수(NPS)가 높아야 합니다.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이 좋은 예입니다. 이 백화점은 원래 자동차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나이가 꽤 든 고객이 착각하여 타이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고객은 이 백화점의 평생고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공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감지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의 변화 속에서 공부하고 변화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

The proud achievements stated above are the results of the spirit to embrace the ECONET challenge for the past two decades since Naturetech built its first factory in Jincheon in September 1990. The year 2011 is critical for two reasons. First, it marks a new start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growth of Naturetech for more than 100 years, and to this end we need to strengthen our core competence. A sustainable company should be an ideal place to work for, to make business with, and to make an investment in. Secondly, it should make investment returns in each area of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society, and to also consistently create value.

Four preconditions need to be met in order to create sustainable growth. First, we need to become a company that satisfies the law of survival of companies (Value>Price>Cost). In mathematical terms, the value should be bigger than the price and the price should be bigger than the cost. In other words, the price should be set higher than the cost, and the value customers feel should be bigger than the price. As the gap between the cost and the price increases the value grows and the company will continue prosper. If this inequality is reversed, the company will perish.

Price minus cost equals productive efficiency. The efficiency needs to be improved by cutting cost in order to increase profitability. For example, the US company Xerox was the first to introduce copiers into the market and it made great profits in a short span of time. However, they became complacent and did not try to reduce their costs, and as a result, they were challenged and out-paced by Canon who sold copiers at half the price. In the end, Xerox was acquired by Fuji, a Japanese company. Customer value minus price equals creativity and it can be obtained only by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through R&D efforts. Customers who queue all night to buy a new Apple product would not mind paying a higher price because they admire and respect the creativity of Apple.

Second, a company cannot exist without customers. Thus, we should focus our company on customer satisfaction. The number of customers, who recommend our products, or NPS (Net Promoter Score), needs to be kept high. There is a wonderful example of customer satisfaction efforts with Nordstrom Department Store in the US. A Nordstrom employee in charge of customer service provided a considerate and thorough service to a customer who mistakenly demanded a refund of a tire even though the store did not sell tires. The customer, of course, became a lifelong customer of the department store.

Third, we need to study hard and continually learn to survive. In the neck-

다. 일본에는 백 년 이상 된,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강소기업이 백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그 회사의 연구력이라 합니다. 일본 교토의 한 중소기업의 연구원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넷째 조건으로 환경경영,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입니다. 나이키의 해외 하청공장에서 유소년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도된 후, 나이키는 주가가 반 아래로 추락했고 다시 회생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니도 유럽에 1조 원 이상 전자제품 임기를 수출했다가 카드뮴이란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입항이 거부되어 수출 전망을 폐기하고 회사가 휘청거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GE라는 회사는 환경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이를 사업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이처텍의 2011년 경영방침은 이러한 지속가능 성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사 본연의 생산경쟁력, 처방경쟁력,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 - 이 세 분야의 핵심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생산효율성과 품질력의 향상을 통해 생산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가와 비용의 지속적인 절감 활동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제품 라인별 생산성과 누적수율의 향상, 그리고 재고의 최적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상생과 공영을 통해 불량을 축소하며, 환경인증과 가족친화기업 등 다양한 대외 인증의 확대를 통해 품질 수준을 고도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폐수처리 자체시설을 확보하여 계곡의 물보다 깨끗한 폐수를 회사 내 물고기가 노는 연못에 공급하고, 아울러 정원 용수로도 이용하여 공장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품개발력과 개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처방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객이 요청한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며, 네이처텍의 핵심 기술력인 생체이용률촉진시스템(BAES)을 통해 유효성, 기능성 데이터를 축적하며 경쟁력 있는 특화제제의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조업 분야가 그랬듯이 네이처텍 역시 수출에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글로벌화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의 지속적인 추진과 탐색을 통해 신규 거래선과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규 동력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글 | 성한용 사장 | 네이처텍

breaking pace of a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only those who study hard and constantly change will survive. There are more than a 100 small companies in Japan who are at the top of their specific field that have lasted more than 100 years. It is remarkable that a researcher who works for a small sized company in Kyoto, Japan was awarded with a Nobel Prize.

Finally, environmental management, ethical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e stock price of Nike plummeted after the media reported that kids were working for an overseas Nike supplier in poor working conditions. It took a great amount of cost and time before Nike could recover its company image. Also, Sony once exported video game consoles which are worth more than 1 billion dollars and later Cadmium was detected in the products. Sony had to dispose of all the exported products and they suffered a great loss. In contrast, GE in the US saw the environment as an opportunity and developed environment-related businesses, and as a result has grown consistently.

The 2011 business direction for Naturetech in order to enable sustainable growth is to strengthen core competence in three areas; products, R&D and a new growth engine. We plan to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and product quality. Consistent efforts for cost reduction, increased productivity of each product line, higher RTY (rolled throughput yield), and optimum stock management are positively necessary to increase profitability. Also, with the cooperation of suppliers, we plan to reduce defects in products, and will improve quality by gaining outside qualifications such as environmental certifications and family-friendly business qualification to eventually supply the right products at the right time. Naturetech has also established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to provide clean water to the pond inside the company where fish swim, and also use it to water the garden, making Naturetech a more eco-friendly place. Also, we will improve R&D to strengthen prescriptive competitiveness. New products desired by customers will be released at the right time, and data on product effectiveness and functionality will be accumulated through BAES (Bioavailability Enhancement System), a core technology of Naturetech, to develop more competitive and well-targeted products. As all Korean companies in manufacturing business have done, Naturetech wants to explore the overseas market. Going global is no longer a choice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make inroads into the global market and make overseas partners will expand business and give us a new opportunity to grow in a sustainable way.

By HY Sung President | Naturetech

전략운영의 가속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Must ceaselessly press on the accelerator to manage strategies

2011년부터 에코넷 한국 각 사의 회의운영방식이 변화되었다. 이는 이병훈 총괄 사장이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에코넷의 3대 전략방향으로 선포한 전략의 집중화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방법론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의 집중화는 에코넷에 실행력 높은 전략운영프로세스와 환경을 구축하여 핵심전략의 실행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략운영 프로세스는 Plan-Do-See를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고, 이런 순환과정을 통해 전략의 실행 수준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에코넷이 2011년 회의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Plan-Do-See'의 전략 운영프로세스 중 마지막에 위치한 See를 강화하여 전략운영의 가속 페달을 끊임없이 돌리기 위한 것이다.

See를 잘 수행하려면 전략실행 상의 이슈들을 발굴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과 액션플랜을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전략실행상의 이슈들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하여 주간임원회의나 월 경영회의가 운영된다. 주간임원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행상의 이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월 경영회의를 통해서도 좀더 구조적인 이슈를 찾고 분석하여 전략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KPI와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실적들을 매월 집계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략맵 상에 위치한 KPI들 중 목표를 미 달성한 KPI

Since 2011, ECONET Korea has changed the method of conducting meetings. This change is in order to put into practice a powerful method for 'focus on ECONET strategies and their execution' announced by Chairman and CEO Bill Lee in the 2011 year opening address. To this end, a strategies management process and environment for good performance were to be built. The strategies management process entails rotating in repetition Plan-Do-See for enhanced execution of the strategies. ECONET is making efforts this year to improve ways of conducting meetings in order to enhance the 'See' part of the Plan-Do-See strategies management process and ceaselessly press on the accelerator to make progress in managing strategies.

To fully realize 'See', one needs to discover issu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strategies, understand the source of problems,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and action plans as well as speedily execute them.

To find and solve issu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strategies, weekly meetings of executives and Monthly Strategy Meetings are held. Weekly meetings of executives are held for the speedy resolution of issues necessitating immediate action. The monthly business management meetings are held to find and analyze structural issue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strategies bore fruits as was first intended. To this end, the accomplishments of KPI and Initiatives are aggregated monthly and reviewed as a priority. Of the KPIs located on the map of



나 진행이 더딘 이니셔티브들은 이슈가 있는 영역이 어디지를 말해준다. 또한, 밸류체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코넷의 특수성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있는 에코넷 전략회의를 통해 사간의 협조가 필요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경쟁양상의 변화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인과관계상 가장 앞단에 위치한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다. 전략맵상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거나 이니셔티브 선정 시에 작성했던 PDT(Performance Driver Tree)는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나의 KPI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 KPI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략맵의 인과관계에서 그 KPI가 영향을 주는 후행 KPI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목표를 달성한 KPI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후행 KPI에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선행 KPI의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었거나, 선행 KPI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계는 KPI와 이니셔티브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실행되었는데 KPI 실적치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이니셔티브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trategies, the KPIs not reaching the goals and initiatives lagging behind tell us which areas need to be reviewed. In addition, given ECONET's special characteristic of being closely linked to a value chain, we hold bimonthly ECONET Strategy Meeting to discuss ECONET Korea's strategies and issues necessitating cooperation among companies. The changes to the shape of competition derived from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hould be reviewed regularl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movements of competitors.

Finding the source cause of problems is finding the problems at the forefront of the cause and effect chain. A review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on the Strategy Map and the Performance Driver Trees(PDTs) prepared when selecting the initiatives may be used usefully here. Just because the target of a KPI was reached, it does not mean that the KPI does not have any problem. Even though the leading KPI of the lagging KPI meet the target, if the lagging KPI didn't meet the target, it means there is a problem. In this case, either the leading KPI's target value was set low and not high enough to impact the lagging KPI or the leading KPI was ultimately not important in reaching the desired target of lagging KPI. This relationship applies also to KPIs and initiatives. The initiatives may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KPI's earnings reaching the level desired because the initiatives did not reflect important items or the selection itself of the initiatives was wrong.

이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전략적 이슈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의 KPI에만 집착하여 KPI간의 관계나 KPI와 이니셔티브의 인과관계를 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는 문제의 근본원인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전략맵을 만들고, KPI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선정 할 때 PDT(Performance Driver Tree)를 작성한 것은 전략실행의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문제의 근본원인에 접근했다면, 신속하게 대응계획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제영역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이 회의에 임하게 되면 회의가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빠지기 쉽다. 2011년부터 회의 참석자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KPI와 이니셔티브에 대해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를 확정하여 곧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잘 정리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계획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들에 부딪치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다. 계획 수립이 충실하였다면 이니셔티브에 새로운 일을 추가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다. 때로는, KPI지표간의 인과관계나 KPI와 이니셔티브간의 인과관계가 당초 우리가 수립했던 인과관계의 가설과 다

The mistake often made in this process is that strategic issues are not understood within the overall context but grasped partially. Without making intentional efforts to se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of KPI and initiatives or between KPIs by focusing on one KPI at a time, one may not find the source cause of the problems. We create a Strategy Map at the planning stage and prepare PDTs when selecting initiatives necessary to reach the KP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utcome of the execution of strategy from an overall as well as cause and effect perspectives.

Once one finds the source cause of problems, one needs to speedily draw up a countermeasure plan and implement it. Should one participate in a meeting without advance review of the scope of problems and plan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meeting will not be able to make decisions and fall into empty talk. From 2011, all participants in a meeting are asked to analyze in advance the problems of KPIs and initiatives that didn't reach their targets, to draw up a countermeasure plan and submit it before the meeting so that discussion would make speedy progress and decisions implemented.

Even if one executes a well organized plan, one is likely to encounter problems failed to notice during the planning stage. If plans are drawn up carefully, we may solve the problems simply by adding a new task to the initiative or adjusting the schedule. At times,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KPIs or



전략맵 Strategy Map



KPI 성과는 전체적인 맥락과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KPI performance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overall context and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니셔티브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의 대체 또는 추가가 필요할 수 있고, 나아가 KPI 자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Plan-Do-See'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회사는 없다. 어느 회사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실행 수준을 높이 끌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See'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에코넷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은 전략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때문에, 전략 수레바퀴를 한 바퀴 또 한 바퀴 연속적으로 돌려 가속을 얻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넷의 전략 수레바퀴는 이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레바퀴를 더욱 빠르게 돌리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에코넷 전략 수레바퀴의 회전 속도를 RPM 2,000의 속도로 끌어 올리는 일은 모든 에코네시안들의 힘겨운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 얻어질 기쁨과 과실도 또한 모든 에코네시안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글 | 김남규 차장 | 전략기획팀 | 에코넷

between a KPI and initiatives may be deemed different to the premise drawn up at the start. When this happens, the initiative may have to be largely amended or add and replace it with a new initiative or further, change the KPI itself.

All companies know that to better execute strategies they must do well the Plan-Do-See process. Any company may draw up a plan and execute it. Nonetheless, many are unable to raise the level of execution of strategies because they don't do the 'See' part well. This is no different to the ECONET of the past.

In many cases, they are incapable of analyzing problems when executing strategies and providing countermeasures to speedily put them into practice. Therefore, they consecutively do not turn the wheel of strategies speeding up, but repeat the task of creating new wheel every time. ECONET's wheel of strategies has started to slowly turn. The task of accelerating it does not fall on one person only. All ECONETians must make arduous efforts to raise the turning speed of ECONET's wheel of strategies to RPM 2,000. If we will do that, the joy and fruits born from the efforts are to be shared by all ECONETians.

By Namkyu Kim Deputy General Manager | Strategy Planning Team | ECONET



샘물은 강물과 하나 되고
강물은 바다와 하나 되며
하늘의 바람은 끊임없이
다정한 정으로 뒤섞인다
세상에 홀로인 것 없으니
만물이 신의 섭리 따라
한 마음으로 만나 섞이기 마련이라
내가 왜 그대와 섞이지 못하랴

퍼시 B. 셸리의 '사랑의 철학' 중에서

The fountains mingle with the river,
And the rivers with the ocean;
The winds of heaven mix forever
With a sweet emotion;
Nothing in the world is single;
All things by a law divine
In another's being mingle--
Why not I with thine?

Excerpted from 'Love's Philosophy', written by Percy Bysshe Shelley

친환경 약초원 조성 유니젠의 환경경영

Environmentally friendly
herbal garde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gen





편집자 주 환경경영은 에코넷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화두의 하나입니다.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환경경영 칼럼을 연재합니다.

1. 에코넷, 환경경영의 길을 걷다 (vol.33)
2. ISO14001 인증 - 2011년 네이처텍의 환경경영 목표 (vol.34)
- 3. 친환경 약초원 조성 - 유니젠의 환경경영 (vol.35)**
4. 환경경영 실천 사례 (vol.36)

일반적으로 환경경영이라 함은 오염예방을 뜻한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 폐기물,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 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후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원·부자재 사용량 줄이기,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물 사용량 줄이기,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줄이기 등의 활동이 환경보호에 효율적인 방법이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물론 광의의 개념에서 환경경영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환경에 해를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활동의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경영이 기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 주관부서 외에 관리, 생산, 구매, 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부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점검, 관리 활동 전반에 참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과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유니젠은 기본적으로 6가지의 환경경영 방침을 제정하였는데, 특

Editor's no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is one of the major objectives that ECONET has begun to implement as a part of corporate strategy. To boost the interests regarding environment management within ECONET, the "ECONETWAY" is including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ries.

1. The roa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vol.33)
2. ISO14001 certification - 2011 goal of Naturetech for environment management (vol.34)
- 3. Environmentally friendly herbal garde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gen (vol.35)**
4. Example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vol.36)

Generally, environmental management is related to pollution prevention. It is because sewage, garbage and carbon dioxide are easier to prevent production preemptively rather than to process afterwards to prevent damages to the environment. Reducing the use of unnecessary material, energy usage, use of water, harmful chemicals are effective way to protect environment and also preferable in economic terms.

In a broader sense,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practicing, and managing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ll process of corporate activity and building eco-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In order to adopt environmental management, all departments including management, production, purchase and R&D must be part of the effort to reduce environmental footprint. The practice, management and results should be evaluated to improve the process to be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Unigen has placed six environmental management principles. Among those, the following three are major principles to be kept.



히 3가지 방침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창조와 유지 및 환경 위해 요소 예방 관리 및 분리수거 차원에서 사내·외 환경 감시 및 배출시설 점검 등 환경상태 수시점검과 업무상 발생한 폐기물 및 기자재 등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의 실시이다.

둘째는 에너지와 원가 절감을 생활화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EMS(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 생활수칙 10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① 장시간의 자리를 비울 때나 식사 시간에 PC와 전등을 소등하고 퇴근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와 원가 절감을 생활화한다. ②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에너지 고효율화(Energy Elevation)를 지향한다.

셋째, 친환경 약초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2010년 4월 5일 전임직원이 참여하여 최초로 조성한 약초원에는 지피 및 약용 식물류, 과실수/약용수, 수생식물 등, 현재 총 165종이 자라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도 있

First,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sustainable environment, Unigen needs to control harmful factors to the environment, and practice strict separation of recyclable wastes. To this end, Unigen will watch out for environment in and out of the company, conduct regular environment check-ups, and meticulously separate wastes and equipment produced at work.

The second is to make a lifestyle of reducing energy use and unnecessary cost, support environment friendly activities of the local community in regular basis, and establish environmentally friendly corporate image in and out of the company through public communication about EMS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 light of the ten energy preservation principles, we specifically aim to a) turn down the PC and lights for lunchtime or for going away for a long time, and shut down the electricity after working hours in order to make habit of energy preservation; b) improve working processes, reduce cost and improve productivity to facilitate energy elevation.

Third, the herb garden will help form environmentally friendly corporate image. All members of the company participated in making of herb garden in April 5th, 2010. The garden grows 165 species including herbs, fruits, water

친환경 약초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2010년 4월 5일 전임직원이 참여하여 최초로 조성한 약초원에는
지피 및 약용 식물류, 과실수/약용수, 수생식물 등, 현재 총 165종이 자라고 있다.

The herb garden will help form environmentally friendly corporate image.
All members of the company participated in making of herb garden in April 5th, 2010.
The garden grows 165 species including herbs, fruits, water plants and lichens.

고 일부는 주변에서 모종을 구해 심은 것도 있다. 유니젠 약초원은 유니베라 UP나 외부 손님이 견학할 때 좋은 경험이 되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종을 점차 늘리고 배치도 다양하게 세분화할 예정인데, 우선 다양한 종자를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유 종이 많아지면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안팎으로 계절별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약초원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과수, 산림, 지피, 수생, 야생화, 허브 등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식물의 균락을 형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적절히 가공하여 간단하게나마 시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유니젠의 환경경영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중요성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에 국한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plants and lichens. Some of them grow naturally, and some of them were collected from outside. The herb garden provides a good refreshing experience for Univera Planners and outside visitors.

We plan to increase species and make diversified arrangement, and as a first step we try to secure a variety of seeds. If the species in the garden increases as planned, we will build a glass greenhouse to grow plants according to season. In the long term, the herb garden will be rearranged to make a theme park in which fruit trees, lichens, water plants, wild flowers are planted in separate areas. Also, the plan is to produce simple products using herbs so visitors can taste the herbs and take souvenirs.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nigen is in its incipient stage. The reality is that not yet many in the company have sympathy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Also,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vity has been implemented only within a part of the company. Thus, we need to raise awareness and complement the plan in many areas.

자연의 지혜를 담다, 힐탑가든

에코네시안은 자연의 작은 것 하나에도 신비로운 지혜가 숨어있음을 알고 그것을 밝혀내어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에코넷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에코네시안의 노력이 맺은 새로운 결실이 국내 특허 및 국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출원한 베이비 알로에, 그리고 그것을 원료로 이용한 힐탑가든(HILLTOP GARDENS)이다.

ECONETians know that amazing benefits are found in nature even in small things and work with the mission of discovering and bringing it to human-kind. The new discovery made by ECONETians recently is the Baby Aloe and the Hilltop Gardens made with baby aloe for which Korean and international patents have been applied according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Wisdom of nature, Hilltop Gardens

알로에는 피부 세포재생, 상처치유,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면역 세포보호, 피부보습효과 등의 효능이 있어 약물, 화장품에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2~3년 이상 성장한 알로에의 잎을 이용한 것이었고, 다 자란 알로에 주위에서 죽순과 같이 새롭게 돋아나는 알로에 새순(Aloe young shoot)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알로에의 모종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큰 알로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숨어내어 버려지던 베이비 알로에. 에코넷은 베이비 알로에에 감추어져 있던 힘에 주목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피부 재생이나 상처치유, 항산화 및 항알러지 효과가 큰 알로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힐탑가든은 이러한 성장과 방어 에너지를 담은 베이비 알로에 외에도 구기자, 비트, 콜리플라워, 딜, 서양호박 등에서 추출한 성분(Botanical Juice, 5-colors Botanical Extracts)을 사용하여 식물이 간직한 근원의 힘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1939년 최초로 알로에를 상업적으로 재배했고, 화장품 원료로 처음 사용된 알로에 베라 겔을 생산했으며, 야채와 허브 등 천연작물을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하는 천연작물 농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힐탑가든 농장의 이름을 브랜드 네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힐탑가든은 화장품 처방(formula)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 파라벤 계열의 합성 방부제, 동물이나 광물에서 유래한 성분, 합성착색제나 합성착향료 등 화장품에 첨가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을 자체적으로 리스트로 만들어(NO-NOS List) 힐탑가든 이후 개발되는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재에 재활용마크 및 분리 배출 마크를 표기해 재활용을 유도했다.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인쇄 잉크 도포를 최소화했으며, 친환경 콩기름으로 인쇄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를 제거한 힐탑가든의 포장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넷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원료의 재배에서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자연의 지혜와 자연을 사랑하는 에코넷의 진심이 담긴 브랜드, 힐탑가든. 작고 어린 베이비 알로에가 그 속에 성장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듯, 이제 막 태어난 힐탑가든 브랜드 또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



글 | 이지희 과장 | 화장품PM팀 | 유니베라 한국

Aloe has the effect of reviving skin cells, healing wounds, blocking UV rays, protecting immune cells, and moisturizing skin and as such is used in drugs and cosmetics. However, they use fully grown aloe leaves over two-to three-years-old and research on aloe young shoot newly sprouting like bamboo shoots around fully grown aloe is almost nonexistent. Other than being used for aloe seedling, baby aloe were thinned out and thrown away to promote the growth of mother aloe. But ECONET focused on the hidden power of baby aloe and disclosed after many years of research that it is more effective and outstanding in reviving skin, healing wounds, anti-oxidation, and anti-allergies. The Hilltop Gardens not only uses baby aloe with such defensive and growth energy but also five-colors botanical extracts of wolfberry, beet, cauliflower, dill and pumpkin to convey the original power inherent in plants.

Hilltop Gardens was first planted with aloe in 1939 and is one of the first commercial Aloe farms in the country. Hilltop Gardens is believed to be the first business using Aloe Vera gel as an ingredient in cosmetics. As the crop list expands into vegetables, herbs and other less traditional crops, Hilltop Gardens will also become a showcase of applicable green technologies. The brand name 'Hilltop Gardens' derives from this farm name.

The Hilltop Gardens attempted to dramatically change the development of cosmetic formulas. Adding synthetic preservative of the paraben line, extracts from animals and minerals, synthetic coloring or synthetic flavoring to cosmetics was legally allowed. But we declared absolutely not to use in our cosmetics developed after Hilltop Gardens by drawing up a NO-NOS list of elements judged possibly harmful to the body.

In addition, we used recyclable containers and induced recycling by printing on the packages of our products the recycling and separate discharge marks. We reduced unnecessary packaging, minimized the application of printing ink, and printed with eco-friendly bean oil to remov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hich cause air pollution. The packaging of Hilltop Gardens shows the will of ECONET to care for nature even in the packaging.

From the farming of ingredients to the design development, the Hilltop Gardens is a brand showing the true heart and love of ECONET for nature's wisdom. Just as a small and fragile baby aloe has the potential to grow, we firmly believe the newly born Hilltop Gardens brand has great growth potential.

By Jihee Lee Manager | Cosmetic PM Team | Univera Korea

세계 최고·최대의 알로에 농장, 알로콧 멕시코

The best aloe farm in the world;
Aloecorp Mexico



멕시코의 여름은 40℃을 웃돈다. 건기의 막바지 5월, 모든 것이 메말랐다. 우리 모두는 비를 기다리고 있다. 알로콧 멕시코가 곤잘레스에 레이크팜(Lake Farm)을 일구어 정착한 지도 벌써 22년째이다. 얼마 전에는 그 때 태어난 곤잘레스의 젊은이가 입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 농장은 곤잘레스(Gonzalez)와 파누코(Panuco) 지역에 나뉘어 있다. 일년 내내 알로에를 생산하고 공급해야 하는 우리에게 농장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농장이 가뭄이나 홍수로 수확이 어려우면 다른 농장에서 잎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산시설이 가까워 수확한 잎을 신선한 상태로 보낼 수 있으면 좋다. 곤잘레스에 있는 레이크팜과 레이온 농장(Rayon Farms)은 생산시설과 가깝다. 파누코 시에 있는 리버팜(River Farm)과 라군팜(Lagoon Farm)은 차로 2시간 반 거리이다. 곤잘레스는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주에 속해 있고, 파누코는 베라크루즈(Veracruz) 주에 속해 있다.

멕시코 농장의 책임자는 알렉스 메나(Alex Mena)다. 그는 곤잘레스와 파누코의 농장을 관리하며 외부 잎 구매까지 책임진다. 그의 전공은 토양관리다. 메나의 지휘 하에 각 농장에는 감독(Supervisor)이 있다. 레이크팜의 감독은 마틴 산체스(Martín Sánchez)다. 산체스는 마우엘(Mauel) 출신으로 바지런한 일꾼이다. 레이온팜은 카예타노 야녜스(Cayetano Yañez)가 책임자다. 작년 레이온팜을 구매한 직후부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파누코에 있는 리버팜과 라군팜은 안토니오 로드리게스(Antonio Rodríguez)가 관리자다. 그는 아버지인 차노 로드리게스(Chano Rodríguez)를 이어 파누코 농장을 책임지고 있다. 차노는 약 3년간 파누코 농장 파견근무를 마치고 레이크팜으로 복귀했다.

The summer in Mexico is hot. The temperature is over 100°F and everything is parched. We are all waiting for rain. It has been 22 years since Aloecorp Mexico built Lake Farm in Gonzalez. One time, a youth of Gonzalez who was born in that time applied for employment.

The farms are divided in Gonzalez and Panuco, because we need aloe year-round. Even if one of the farms is hit by severe drought or flood, the other must be able to provide aloe leaves. Of course, it is better if the farm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a manufacturing facility so that fresh leaves can be directly sent to. Lake Farm and Rayon Farms in Gonzalez are near the plant, and River Farm and Lagoon Farm in Panuco are about two and a half hour by car to the plant. Gonzalez is located in Tamaulipas state whereas Panuco is in Veracruz State.

Alex Mena is in charge of Mexico farms. He supervises farms in Gonzalez and Panuco, and also overseas purchase of leaves from outside. His specialty is soil management. Under the direction of Mena, there are supervisors in each farm. The supervisor in Lake Farms is Martín Sánchez. He is a diligent man from Mauel. Rayon Farm is in charge of Cayetano Yañez. He joined the company since the purchase of Rayon Farm in last year. Antonio Rodriguez is responsible for River Farm and Lagoon Farm. He is taking care of Panuco Farms after his father Chano Rodriguez. Chano Rodriguez returned to Lake Farm after spending three years in Panuco Farms.

알로콰 멕시코의 역사가 시작된 곳,레이크팜

알로콰가 1989년에 정착한 레이크팜은 전체 면적이 333 헥타르(ha)다. 사사를 보면, 구입 당시 곤잘레스 지역은 척박한 토양과 빈약한 주변 조건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는 악마의 땅이었다고 한다. 알로콰의 완제품 생산 공장이 있던 미국 텍사스 라이포드(Lyford)에서 차로 7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곳이지만 냉해를 피할 수 있는 최북단 지역이다. 알로콰가 여기에 정착한 지 22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세계 최대의 알로에 생산 기지(Cluster)로 변했다. 알로콰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 알로에 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농장이 많이 생겼다.

333 ha 농지 중 현재 80 ha에 알로에를 짓고 있다. 나머지는 현재 휴식 중으로 지력을 높이기 위해 귀리, 콩과 작물 등을 재배한다. 알로에는 알로에 어미종자(Mother plant) 주변에 생기는 새끼모종(Pups)을 새 땅에 옮겨 심어 재배한다. 이 새끼 알로에가 1년쯤 자라면 수확할 수 있다. 첫 수확에서 보통 250g 정도의 잎을 딸 수 있다. 이때 바깥쪽 잎만 수확하고 속의 잎 14개는 남긴다. 그런 후 3개월 후에 다시 바깥쪽 잎을 수확하고 속의 잎 14개를 남겨 다음 수확을 기다린다. 알로에는 다년생 식물이다. 첫 수확 후 약 5년간 3개월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수확하여 통째로 가공한다. 이때 대지는 1년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대지의 휴식과 추스름에 무심했다. 레이크팜에서는 윤작하지 않고 계속 알로에를 재배함으로써 지력이 많이 쇠퇴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섹션(section)별로 윤작을 시행하고 있다.

레이크팜은 섹션이 다섯이다. 섹션A에는 아가베(Agave) 60,000주가 자라고 있다. 아가베는 7년을 키워 뿌리에 생기는 과인애플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인 테킬라와 감미료로 사용하는 아가베 시럽(Agave syrup)을 만든다. 섹션B와 C의 일부와 E에는 알로에 1백만 주가 자라고 있다. 특히 섹션E는 한동안 공지로 두었다가 2006년 알로에 경작을 시작했다. 지금은 아주 튼실한 알로에가 자라고 있다. 섹션D는 휴경지로 올해 말쯤 알로에를 심을 예정이다.

레이크팜에서는 40명의 직원이 일한다. 보통 알로에 재배 면적 4ha당 1명의 직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레이크팜은 휴경지 관리도 겸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다. 직원들은 트랙터 기사, 수확팀, 그리고 유지관리팀으로 역할이 나뉜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햇빛이 강할 때는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금을 넣어 만든 '수에로(Suero)'를 반드시 챙겨 들로 나간다.

올해는 6월초까지 7개월간 비가 없었다. 그래서 레이크팜에 있는 다섯 군데 호수 모두 바닥까지 물이 말랐다. 지금같이 호수가 마른 때에는 호수 바닥을 다지고 진흙을 긁어 내어 비가 올 때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대비한다.

레이크팜 이웃에는 메노나이트들(Mennonites)이 산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종교적 성실함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귀리,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우리 농장의 귀리도 그들이 짓는다.



Lake Farm, where the history of Aloecorp Mexico began

The 333 ha-wide Lake Farm is purchased by Aloecorp in 1989. Looking into the corporate history, the region was called as the land of devil due to arid soil and other unfavorable circumstances. It is seven-and-a-half-hour ride from Lyford, Texas where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Aloecorp is located, but is also in the northernmost part to avoid freezing. 22 years has passed since Aloecorp settled in, and now this place is the world's largest aloe production cluster. There are other big-scale aloe farms around the Lake Farm which are not owned by Aloecorp.

Presently, 80 ha of the land out of 333 ha is growing Aloe. The rest of the land is growing oats and legumes to recover the soil fertility. Aloe pups bud near the mother plants, and they are transplanted to grow for a year to be harvested. In the first harvest, usually around 250g of leaves are gathered. Only outside leaves are harvested, leaving 14 inside leaves untouched. After three months, outside leaves can be picked up again, leaving inside leaves again. Aloe is perennial plant. After the first harvest, outside leaves are taken in three-month-term for five years. After five years, the whole plant is harvested and processed. The land now needs to rest for a year, which we have been neglecting for a while. In the past, Lake Farm grew aloe without giving the land time to rest. As a

result, the fertility of soil is damaged seriously. Thus, the Farm divided sections and take turns to help the land rest since 2008. It has five sections. The section A grows 60,000 plants of Agave. Agave is pineapple-like fruit born in the root after seven years. Tequila, a representative spirit of Mexico, and Agave syrup is made from the plant. Section B, a part of C, and section E grows a million aloe plants. Section E had been left to rest for a while, and aloe is growing in the section since 2006. The aloe plants in the section now are sound and healthy. Section D is resting now, and it is planned to grow aloe from the end of this year.

The total of 40 employees are working in Lake Farms. Usually one employee covers 4 ha of the land, but Lake Farm needs more people for management of resting land. The employee has three roles; tractor driver, harvest, and management. When the weather is hot and sun is blazing, everyone needs to take saltish Suero to work. It has not rained for seven months in this year. Five lakes in Lake Farm are all dry to the bottom. In this time, we harden the ground and rake out mud so that the lake can contain more water when rain comes.

Mennonites are living near Lake Farm. They grow oats, beans and maize with diligence and religious sincerity in their unique community. They also grow oats in Lake Farm.

알로콧 멕시코 현황 Status of Aloecorp Mexico

알로콧 멕시코는 2011년 현재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파누코강을 중심으로 하여 멕시코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주의 곤잘레스(Gonzalez) 지역과 베라크루즈(Veracruz) 주의 파누코(Panuco) 지역, 그리고 그 사이의 레이온(Rayon)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농장과 곤잘레스(Gonzalez)의 원료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총 772 헥타르(ha)의 규모를 자랑하는 알로콧 멕시코는 세계 최고, 최대의 알로에 농장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Aloecorp Mexico has five farms surrounding Panuco River flowing into the Gulf of Mexico. The five farms are located in Gonzalez in Tamaulipas, Panuco in Veracruz, and Rayon in between. Also, it has a manufacturing facility in Gonzalez. With its 772 ha of land, Aloecorp Mexico is by far the best & largest cluster of aloe farms.

	농장명 Name	규모 Size	호수/연못 수 Ponds	책임자 Supervisor	농부 수 Farm employees	구입시기 Time of purchase
곤잘레스 지역 Gonzalez	레이크팜 Lake Farm	333 ha	5	마틴 산체스 Martín Sánchez	40	1989
파누코 지역 Panuco	리버팜 River Farm	134 ha	0 (관개시설) irrigation by the river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Antonio Rodríguez	6	2007
	라군팜 Lagoon Farm	59 ha	1		6	
레이온 지역 Rayon	레이온팜 Rayon Farm	196 ha	4	카예타노 야녜스 Cayetano Yañez	20	2010
	글로브팜 Grove Farm	50 ha	1			

환희에서 좌절로,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땅, 파누코 농장

타마울리파스 주에는 베르날 산(the Bernal de Horcasitas mountain)이 있다. 820m에 불과하지만 평지에 우뚝 솟아 사방이 보이는 타마울리파스 주의 상징이다. 대지에 흙이 난 듯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젖꼭지 같아 보이기도 하다. 산 가까이에 마운틴팜(Mountain Farm)이 있었다. 2006년에 2백만 주의 새끼 알로에(Pups)를 알로코프 차이나(Aloecorp China)에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온 곳이 바로 마운틴팜이었다. 농장 주변에는 관개용수로(Water Channel)가 있다. 가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알로에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마운틴팜을 구입할 때 실무자의 실수로 용수권(Water Right)을 사지 않았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마다 마운틴팜은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물 공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토지를 찾다가 2007년 파누코 농장을 구입했다. 파누코 시 옆으로는 500km에 이르는, 멕시코에서 4번째로 긴 파누코 강(Panuco River)이 흐른다.

파누코 농장은 농장이 둘이다. 파누코 강 옆에 위치한 리버팜은 면적이 134 ha이다. 2007년 처음 알로에를 심은 후 그 해 바로 큰 홍수를 맞았다. 그 홍수로 파누코 시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다. 우리 농장의 알로에도 2~3m 깊이의 물에 잠겼다. 알로에는 강한 식물이다. 어미 알로에의 경우, 물에 잠겨도 24시간 이내에 물이 빠지면 산다. 그러나 2007년 홍수는 물은 빠지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 우리는 대부분의 알로에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 알로에를 심고 물이 넘친 곳에 약 3m 높이

Glee turned into despair; but Panuco Farm does not give up hope

The Bernal de Horcasitas Mountain is located in Tamaulipas State. The height is around 820m over sea level, but it towers over the plain, and is the symbol of Tamaulipas. Sometimes it looks like a lump bulged out of the land, or a mother's breast. Mountain Farm is near the mountain. In 2006, we sent 2 million aloe pups to Aloecorp China, and they were produced in the Mountain Farm. There is water channel in the vicinity of the farm. In drought, aloe should be watered at least once a month. However, there was a mistake in the purchase of Mountain farm that water right is not included in the contract. Every time a drought comes, Mountain Farm had difficulty in securing water supply. We sought for a land where water is plenty, and purchased Panuco Farm in 2007. Alongside with the Panuco City, there flows 500km-long Panuco River, the fourth longest in Mexico.

Panuco farm has two farms. River Farm just beside the Panuco River is 134 ha. Just after we planted aloe in the farm, River Farm was hit by a massive flood. The whole Panuco city was submerged by the flood. The aloe in the farm was 2 to 3 meters under water. Aloe is a strong plant. In the case of mother plant, even if it is submerged, the plant survives as long as the water drains in 24 hours. However, the

농사는 ECONET의 기반이다.

농사는 우리의 기반이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는 땅에서 나온다. 우리 세계 최고의 알로에 농사꾼이라 자부한다.

우리가 가진 노하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좋은 땅을 고르는 안목이다. 알로에 농사에 적합한 땅, 유기질이 풍부한 대지,

그리고 대규모 농사에 필요한 물이 갖추어진 곳을 고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

우리는 레이크팜에서 토양의 소중함을 배웠고, 마운틴팜에서 관개용수의 가치를 절감했으며, 파누코 농장에서 치수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둘째, 유능한 농부다.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진 농부, 바지런한 일꾼, 알로에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2008년 말 파누코 농장에서 새로 알로에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 알로에를 아는 농부를 구하지 못해 몇 달 동안

곤잘레스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한 적이 있다. 알로에 농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잡초 제거, 고랑 다듬기, 물주기 등은 필수이다. 각종 병충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농부가 알로에를 보고 판단한다.

셋째, 수년간 전수된 지식이다. 우리는 일 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알로에가 필요하다.

알로에를 키우는 일은 곧 알로코프의 수년간 축적된 지식의 발현이다. 우리는 이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며 전수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살핌이다. 우리는 매년 가뭄과 홍수를 걱정하며 하늘에 기원한다.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알로에 농장을 가꾸더라도 결국 하늘의 보살핌이 있어야 농사를 성공적으로 꽃피울 수 있다.

의 독을 쌓고 인공 호수도 만들어 수해에 대비했다.

2008년 3월에 식재를 마친 알로에는 잘 자라 2009년 수확 철에는 이파리 하나가 600g이 넘었다. 좋은 토질과 적절한 관개 덕이었다. 보통 알로에 한 포기당 초년에는 약 5kg의 잎을 수확하고 다음해부터는 7kg을 거둔다. 그러나 파누코 농장의 알로에는 초년에 이미 7kg을 수확했다. 당시 농장을 방문하신 총괄사장님이 책임자였던 어네스토 살가도(Ernesto Salgado)를 '알로에 농사의 신'이라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그런데 자연(Mother Nature)이 시기하신 걸까? 2010년에 우리는 다시 큰 홍수를 당했다. 하루 강수량만도 20인치가 넘는 비가 연일 계속되었다. 다행이 우리가 만든 독이 잘 지탱하여 주었으나 호수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물이 농장 입구부터 역류하여 차오르기 시작했다. 2010년 8월 4일 결국 제방도 넘치는 물을 막지 못했다. 전 농장이 다시 3m의 물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

홍수가 휩쓸고 간 농장에 남은 것은 약 6만 주의 알로에에 불과했다. 잘 자란 알로에 1백여만 주를 잃었다. 가슴은 뺨 뚫려 정말 원망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을 묻었다. 2011년 멕시코 정부도 농장 입구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수로(Channel)를 완성했다. 농장을 새로 개발하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라군팜은 면적이 59 ha이다. 라군팜은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인증(Organic Certification) (2009년)과 GLOBALG.A.P(Good Agricultural Practice)(2010년) 인증을 받았다.

2007 flood took three months to drain completely. We lost most of the plants. However, we did not give up. We planted aloe again, and built three-meters-high wall where the water was flooded and made an artificial pond to fend off flooding.

The aloe we planted in March of 2008 grew so well, and an aloe leaf weighed more than 600 grams in 2009 harvest, thanks to rich soil and well-planned irrigation. Usually, 5 kg of leaves are gathered from a single aloe plant in the first year, and 7 kg from the following year. The CEO and Chairman Bill Lee who visited the farm spoke of Ernesto Salgado, the supervisor of River Farm at that time, as "the God of aloe farming."

However, maybe Mother Nature was jealous of our success and the farm was hit again by a big flood in 2010. It poured down as much as 20 inches day after day. Fortunately the wall we built did not give way, but the water which did not go to the lake flooded the farm. In August fourth, the wall could not stand against the flooding water any longer, and the entire farm went under three meters of water. After the flood was gone, only 60,000 plants of aloe were left. We lost fully grown one



Farming is the foundation of ECONET

Farming is the beginning of what we do. The raw material of ECONET products comes from the land.

We take pride in the fact that we are the best aloe farmers in the world. The know-how we have is threefold.

The first is to choose the right land for aloe. We have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hoose the right land for aloe farming, rich soil, and abundant water supply for big-scale farming. We learned the importance of soil from the case of Lake Farm, realized the value of water supply from Mountain Farm, and found out the critical importance of water management in Panuco Farm.

The second is competency of people. Diligent farmers who know aloe and love the land are indispensable.

At the end of 2008, we had to dispatch employees for a few months from Gonzales to Panuco Farm at the time they first had to harvest aloe and could not find the experience farmers. Constant care and attention is essential in aloe farming.

Regular weeding, watering, careful tending of ploughs are necessary, and one should also watch out for ailments.

All of these should be detected with the eyes of experienced farmers.

The third is accumulated knowledge for years. Aloe is necessary for us year-round.

Cultivating aloe is the result of our accumulated knowledge for long time. We share, record, and transcend the knowledge.

The last factor is the weather, care of nature. We pray for favorable weather every year.

We make preparation with utmost efforts to tend the farm, but farming cannot be successful without the help of nature.



리버팜과 라군팜에는 각각 6명의 직원들이 일한다. 라군팜에는 현재 13 ha에 알로에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기농 재배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올해 라군팜에는 깊이 3m, 길이 1km에 달하는 긴 웅덩이를 만들어 홍수에 대비했다.

새로운 희망, 레이온 농장(Rayon Farms)

2010년 9월, 우리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땅을 찾았다. 레이크팜은 휴식이 필요했고 파누코 농장은 두 번의 홍수에 거덜났다.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에르네스토 살가도의 기억에 의하면, 2005년경 튼실하고 굵은 알로에 잎을 우리에게 공급하던 농장이 있었다. 농장주는 베르나르디노 모랄레스(Bernardino Morales)였다. 처음에는 단지 알로에 농사를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때 그는 채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 살가도와 메나를 통해 땅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해 10월 246 ha의 땅을 샀고, 즉시 물을 채워둘 호수를 만들었다. 레이온 농장에는 원래 호수가 4개 있었는데, 246 ha의 땅에 농사를 짓자면 호수가 하나 더 있어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레이온 농장은 농장이 두 개다. 196 ha의 레이온팜과 50ha의 글로브팜(Glove Farm)이다. 글로브팜은 장차 유기농 농장(Organic Farm)으로 인증 받을 예정이다. 유기농(Organi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레이온팜에는 124 ha, 글로브팜에는 26 ha를 식재했다. 애초에 30 ha씩 윤작을 고려한 것이다. 레이온 농장에는 현재 20명이 일한다. 대부분은 근처 마을에서 출퇴근한다. 올해 말이면 레이온 농장에서 수확을 시작한다. 그때는 직원을 늘릴 계획이다.

우리 모두는 부푼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다. 가뭄과 홍수를 걱정하지 않는 농장, 이파리당 1kg씩 거둘 수 있는 알로에 농장을 여기 레이온 농장에서 꿈꾼다.

글 | 윤경수 사장 | 알로콰

million aloe plants. We were frustrated and wanted to blame the heaven. However, we put the despair behind. In 2011, the Mexican government built channel in the entrance of the farm to detour flooding water. It will take at least a year to recover the farm. However, we are ready to start from square one.

Lagoon Farm is 59 ha wide. Despite the flood damage, the farm won organic certification in 2009, and GLOBAL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in 2010.

Respectively, six employees are working in River Farm and Lagoon Farm. In Lagoon Farm, we planted aloe in 13 ha of the land, and plan to expand organic farming consistently. We built a long ditch 3 meters deep and one kilometer long to prevent flooding.

Rayon Farms, a new hope

In September 2010, Aloecorp was in need of a new land which is free from drought and flooding. Lake Farms needed a rest, and Panuco Farms are devastated by two flooding. Ernesto Salgado remembered that there was an aloe supplier around 2005 which provided thick, healthy leaves. The farm was owned by Bernardino Morales. At first, we originally wanted aloe supplies. However, Morales was growing vegetable at that time. Then the heaven gave us an opportunity. We heard news from Salgado and Mena that the land is out for sale. Aloecorp purchased 246 ha of land in October, and a water reservoir was built at once. Rayon Farm had originally four lakes, but according to our calculation another lake was needed to prepare for drought and flood for the 246 ha of the land. Old Rayon farm was divided into two farms. There are 196 ha-wide Rayon Farm and 50 ha-wide Globe Farm. It is planned that the Globe farm will be turned into an organic farm. In order to apply for organic certification, three years of organic farming is required. Aloe plants were planted in 124 ha of Rayon Farm and in 26 ha of Globe farm. Out of the two farms 30 ha each are left for future farm rotation and rest. 20 people are working at Rayon Farm. Most of them are commuting from neighboring villages. At the end of this year, Rayon Farm will start harvest. We plan to hire more people at that time.

We all have high hope for Rayon Farm. We dream of a farm unaffected by drought and flood, a farm where single aloe plant produces 1kg of leaves here in Rayon Farms.

By KS Yoon President & CEO | Aloecorp

최고의 알로에를 위한 우리의 노력 Our Continuous Efforts to Produce the Best Aloe



에코넷 농장의 실천 원칙 네 번째. The code of conduct of ECONET farms' article No. 4
 안전하고 우수한 작물을 생산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객관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한다.
 Produce safe and superb product and gain the objectivity acknowledged by the society to win customer's trust.

글로벌 갭 GLOBALG.A.P



인증서
Certificate

설명
What is...?

글로벌 갭(GLOBAL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은 이전에는 유럽 갭(EUREPG.A.P)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세계 88개국에서 인증된 생산자를 포함하여 농업생산물의 안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에 기초한 우수농산물관리시스템의 글로벌 인증제도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모든 영농활동과 생산단계가 국제적 및 국가적 기준, 식품의 안전한 생산에 관한 규정에 맞게 관리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세계 주요 대형 농산물 구매/소매 업체들은 글로벌 갭을 생산자나 납품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요구하고 추세이다.

GLOBAL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formerly known as EUREPG.A.P., is a globally acknowledged certification including the producers in 88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safe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 which prevents and minimizes harmful factors to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 The customer can be convinced that the whole farming activities and production processes are in lin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safe production of food according to criteria of the country and international standard. More and more global and major food wholesalers and retailers require GLOBALG.A.P to their suppliers and local farms.

알로콥 멕시코(Aloecorp Mexico)는 수십 년간의 알로에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영농 방법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2009년부터 글로벌 갭의 관리점(control points)이나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에 맞도록 정비하고 예비실사(pre-audit)를 거쳐 6개월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10년 12월에 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는 알로에로서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갭 인증 획득이다.

Based on decades of experiences in cultivating aloe, Aloecorp Mexico adjusted its scientific agricultural practices and safe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of GLOBALG.A.P from 2009, and went through pre-audit. Since then, the shortcomings were complemented for six months and finally completed the certification process in December 2010. It is the first GLOBALG.A.P certification acquired in aloe production.

글 | 우성식 CAO(Chief Agricultural Officer) | 에코넷

유기농업 Organic farming



1 USDA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2 EU Organic - (EC) No 834/2007

유기농업이란 비료, 농약 등 합성된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만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농업을 말한다. 특히 CODEX(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는 유기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순환 및 토양 생물활동 증진을 위한 총체적 체계의 친환경 농업으로 정의한다. CODEX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IFOAM(국제 유기 농업 운동 연맹)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유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rganic farming means agricultural practices using only natural resources such as organic and microorganism substances to produce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e ecosystem without using any synthetic materials such as synthetic fertilizer or pesticide. CODEX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defines organic farming as a 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hich promotes and enhances agro-ecosystem health, including biodiversity, biological cycles, and soil biological activity. According to CODEX guideline and principles and standards of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 the organic farming cert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by country or region.

알로콥
멕시코에서는
In Aloecorp
Mexico...

알로콥 멕시코는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와 각종 기록관리체계를 유기농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기관리시스템(Organic System Plan)에 의한 알로콥 자체의 우수한 친환경적인 알로에 재배와 가공생산을 운영하여 2010년 10월에 세계적인 유기인증시스템의 두 축인 미국 농무부의 국가 유기 프로그램(USDA NOP (National Organic Program))과 유럽 유기법령(EU Organic - (EC) No 834/2007)의 유기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Aloecorp Mexico adjusted its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and record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organic farming practices, and placed environmentally friendly its own alo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system according to OSP(Organic System Plan). As a result, Aloecorp won the two most representative organic certifications in the world; USDA's USDA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and EU Organic - (EC) No 834/2007.

By Sung-Sick Woo CAO (Chief Agricultural Officer) | ECONET



4월은
에코넷 정신의 달
섬김과 나눔

USA ECONET Family of
Companies Celebrate
Spirit Month & Founder's Day



이병훈 총괄사장과 제시카 (헤븐즈 세이크 야생보호구역)
 Bill Lee & Jessica building storage unit for Heaven's Sake
 Wildlife Sanctuary

에코넷의 창업주인 고 이연호 회장과 일가는 오랫동안 기업 경영에 힘쓰는 한편 사회에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왔다. 에코넷 미국의 각 계열사는 매년 4월 5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해 고 이연호 회장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2006년부터 고 이연호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미국 계열사들은 이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임직원들이 각종 사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함께 하는 점심, 리더들이 직접 나누어주는 아이스크림 서비스, 그리고 적십자 헌혈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한 주간 이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4월을 '에코넷 정신의 달'로 정했다. 직원들이 한 주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아가 리더들에게 대접만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4월 4일부터 미국 워싱턴 주 레이스 사무실에서는 이병훈 총괄사장의 감동적인 연설과 함께 각종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회사와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고 이연호 회장의 통찰력 있고 유익한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연호 회장은 언제나 몸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이끌고 직원들을 보살피며 사회를 걱정하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였다. 고 이연호 회장이 이병훈 총괄사장에게 주었던 통찰력과 가르침은 레이스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연설이

The company's founder, Yunho Lee, and his family have a long history of servant-leadership in leading their businesses and in serving their communities. Each year, on April 5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recognizes the founding of the company by Yunho Lee. This date is called "Founder's Day". Starting in 2006, in honor of Yunho Lee's legacy of service, the USA offices closed their operations and employee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arious community service projects. During this week, there were also a variety of service events from lunches and ice cream served by the leaders and a Red Cross blood drive.

This year, a decision was made to designate April as "Spirit Month". This proposal was made because there were so many great acts of service that had occurred in one week that we wanted the employees to have time to reflect on giving to others, as well as, being the recipient of servant-first acts by our company leaders.

On April 4, the Spirit Month activities were kicked-off in Lacey, WA USA with an inspiring speech by Bill Lee who shared why serving our business and communities to the best of our abilities is so important. During his speech, he shared many inspiring stories of when his father provided him with very insightful and beneficial guidance that continues to inspire Bill Lee today. Yunho Lee was truly a great servant-leader who led by example and as a result was an excellent business leader, caring employer, and socially-minded. The Lacey, WA USA employees really appreciated hearing Bill Lee's stories about his father and the insightful guidance he had given him. Following Bill Lee's speech, the employ-



켈리와 크리스틴 (헤븐즈 세이크 야생보호구역)
Kelly & Christine gardening for Heaven's Sake
Wildlife Sanctuary



창립기념 오찬에 배식 봉사를 하는 임원진
Bill Lee, HY Sung, Kelly Newcomer, and
Stuart Ochiltree serving luncheon



웬웬 마, 게일 메리트, 사라 에디슨, 마리아 로페즈, 올란다
블랜드, 안젤라 단미어(FISH 푸드뱅크)
Wenwen Ma, Gail Merritt, Sarah Edison, Maria Lopez,
Yolanda Bland and Angela Danmeyer (Southeast Food
Bank : FISH (Friends in Service to Him) Food Banks of
Pierce County)

끝난 뒤 직원들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러 4월 5일은 이연호 회장을 기리는 뜻에서 휴일로 정했다. HR의 타라 아담스와 사라 에디슨이 지역사회봉사활동 조직을 담당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과거에도 직원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헤븐즈 세이크 야생보호구역, 햄튼 알츠하이머 요양원, 세인트 리오 푸드뱅크, 사우스이스트 푸드뱅크 등에서 이루어졌다.

헤븐즈 세이크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8에이커 가량의 소규모 농장으로, 어미를 잃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낼 때까지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제시카 파렌부르크, 켈리 뉴커머, 김벌리 수어크, 크리스틴 윈터스, 제니퍼 라이트, 핑 지아오, 사라 패스매니션, 지푸 자오, 로빈 린제이, 이병훈 총괄사장과 아들 현섭은 잡초로 무성한 땅을 다람쥐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서식지로 바꾸어놓았다. 이 땅은 동물보호단체가 필요한 자재, 우리, 사육장 등을 확보하는 대로 다람쥐 서식지로 쓰일 예정이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아들 현섭과 딸 나경은 구출한 토끼들을 돌보고 못 쓰는 나무등걸을 삼으로 파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미티 맥두걸, 니콜 디아즈, 브랜든 코닐리우스, 캐서린 모세스는 닭장을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거들었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부인과 딸 나경은 새장을 청소했다. 타라 아담스, 스테이시 토마스, 다니엘 로슈로, 고성환 부사장은 헛간과 개집

ees had a very nice lunch together.

On April 5, the USA offices were closed in honor of our founder, Yunho Lee. Tara Adams, HR Generalist and Sarah Edison, HR Generalist, wer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community service projects. Most of the volunteer community projects were with organizations where we had served previously – (1) Heaven's Sake Wildlife Sanctuary, (2) Hampton Alzheimer's Special Care, (3) Saint Leo's Food Bank, and (4) South East Food Bank.

For Heaven's Sake Wildlife Rescue is a small eight-acre farm i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orphaned or injured animals, both wild and domestic, by provid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in a safe and secure, nurturing environment while preparing them for release into their natural habitat. Jessica Fahrenbruch, Kelly Newcomer, Kim Suwak, Christine Winters, Jennifer Wright, Ping Jiao, Sarah Pathmanathan, Jifu Zhao, Robin Lindsey, Bill Lee and his son, Bill, took an overgrown run of landscape and turned it into a peaceful squirrel haven which will be used to release squirrels into the habitat once FHSARR obtains the needed materials, kennels, and cages. Bill Lee's daughter, Susan, and son, Bill, shoveled bark and they also enjoyed consoling the rescued bunnies. Amity McDougal, Nicole Diaz, Brandon Corneliusen, and Catherine Maurseth relocated a chicken coop to a better location on the FHSARR site. Bill Lee's wife, Jung, and her daughter, Susan, cleaned out bird cages. Tara Adams, Stacy Thomas, Danielle Rocheleau, and Sung-Hwan Ko organized the outdoor shed and kennels.

올해부터 4월을 '에코넷 정신의 달'로 정했다. 직원들이 한 주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아가 리더들에게 대접만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This year, a decision was made to designate April as “Spirit Month”. This proposal was made because there were so many great acts of service that had occurred in one week that we wanted the employees to have time to reflect on giving to others, as well as, being the recipient of servant-first acts by our company l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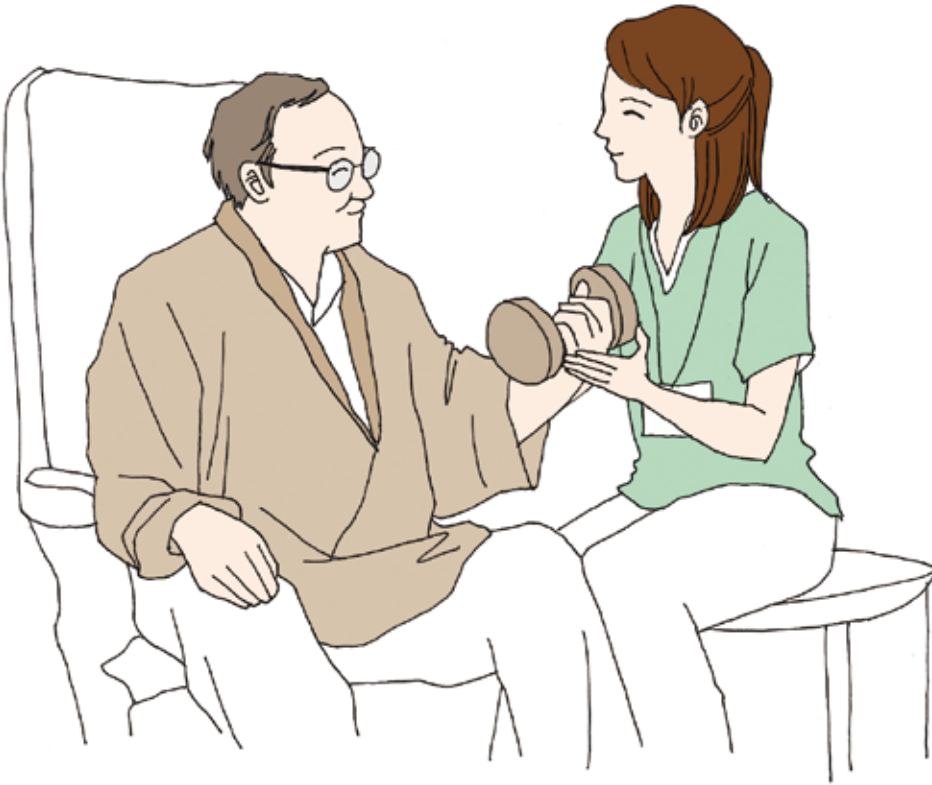
을 정리하였다.

햄튼 요양원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걸린 고령자를 위한 요양병원이다. 아만다 데이비스, 제이슨 데이비스, 아메드 버살리, 조던 브루너, 론 닙, 레이첼 올슨, 키타 테렐은 창립기념일에 햄튼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에코네시안들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환자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치료견들을 씻기고, 초칭 피아니스트와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는 등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세계 창립기념일은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공감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기회입니다.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과 잠시나마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런 귀중한 체험을 제공해 준 에코넷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아메드 버살리는 말했다.

세인트 리오 푸드뱅크에서는 '배낭속의 푸드뱅크'라는 행사를 조직했다. 주말 동안 끼니를 거르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음식이 든 배낭을 나누어 주는 행사이다. 배낭에 음식을 싸는 역할을 맡은 배낭 준비는 스튜어트 오킬트리 사장, 윤경수 사장, 라이언 마일즈, 타티아나 살라자르, 타오 홍, 린다 브라우넬, 이리아나 스튜피나와 그녀의 딸 이자벨이 맡았다. 레베카 보상과 트레이시 워커는 배낭 속에 카드를 넣었다. 칼라 캐비아 루이즈, 사라 패스매너션은 배낭을 묶는 일을 맡았다. 스티븐 체네스키와 아들들은 다른 팀들을 보조하였다. 에릭 빌라는 음식을

Hampton Specialty Care Center is a convalescent assisted living home for senior residents suffering from Alzheimer's and Dementia. Amanda Davis, Jayson Davis, Ahmed Bersali, Jordan Brunner, Ron Gnyp, Rachel Olsson, and Quita Terrell all spent Founder's Day visiting with the residents of the Hampton Alzheimer's Special Care facility. The ECONETians chatted with the residents by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lives and interests—sometimes the residents were able to retrieve details that were initially difficult for them to remember. They also helped the residents engage in a variety of activities: petting three visiting dogs, singing old time songs with a guest pianist. Ahmed Bersali took a moment to reflect on his Founder's Day experience: “For me it was a moment to remember the meaning of compassion and love toward others. It was also sad to see men and women ending up like this. I was glad to be a companion for a few of them for a while. Thanks for ECONET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there.”

St. Leo's has implemented a program called, “Food Bank in a Backpack” which distributes backpacks of food on Fridays to local students who are at risk of hunger over the weekends. The backpack assembly line members who were responsible for placing a food item in the pack were: Stuart Ochiltree, KS Yoon, Ryan Miles, Tatiana Salazar, Thao Hong, Lidia Brownell, Irina Stupina and her daughter, Isabelle. Rebecca Beauchamp and Traci Walker included paper each bag. Carla Cabiya Ruiz and Sarah Pathmanathan were responsible for closing the bags. Stephen Cherniske and his boys also helped the team in any manner needed. Eric Villar was busy restocking products. I am proud to say that through



나르느라 분주했다. 뛰어난 팀워크와 노력 덕분에 팀원들은 두 시간 만에 배낭 900개를 싸는 기염을 토했다.

피어스 카운티의 FISH(Friends in Service to Him) 푸드뱅크는 6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6명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이다. 랄프 비즈, 탐 홀리헌, 유리 보로베츠는 푸드뱅크 창고에 말린 음식과 통조림을 채우는 봉사를 하였다. 마리아 로페즈, 웬웬 마, 탐 트립, 사라 에디슨, 안젤라 덴미어, 올란다 블랜드는 파스타를 봉지에 담았다. 그 외에도 음식의 무게를 재고, 플라스틱 물품을 포장하는 일 등이 있었다. 사우스이스트 푸드뱅크 직원들은 에코네시안들의 자원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4월 5일 지역봉사활동을 가진 후, 다양한 봉사와 나눔의 달 활동이 이어졌다. 4월 15일 에코넷과 유니베라 임원들은 워싱턴 레이시 직원들을 위해 건강식 오찬을 준비했다. 한국 전통 갈비, 쇠고기, 닭고기, 볶음국수, 닭고기 볶음밥, 야채와 만두가 준비되었다. 이병훈 총괄사장, 성한용 사장, 게일 매리트, 스투어트 오킬트리, 켈리 뉴커머는 풍성한 만찬을 직원들에게 직접 서빙하였다. 세인 맥클레런, 스티븐 체네스키, 손병일, 레이첼 위스비, 에드윈 카모우하, 레베카 보상, 이요한, 테리 베이커, 샤론 메저우스키, 데이브 프레데릭은 만찬 준비와 뒷정리를 맡았다. 레이시 직원들은 공동구역에 모여 풍성한 만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his team's teamwork they were able to fill nearly 900 backpacks in two hours!

FISH (Friends in Service to Him) Food Banks of Pierce County is a non-profit organization consisting of six employees and over 600 volunteers. Ralph Bietz, Tom Hoolihan, and Yuri Vorobets stocked canned and dry goods on the Food Bank shelves. Maria Lopez, Wenwen Ma, Tom Tripp, Sarah Edison, Angela Danmeyer, and Yolanda Bland scooped pasta into bags to get them ready for pick up. Other jobs throughout the day consisted of weighing the different food items and bagging plastic ware. The members of the Southeast Food Bank were very appreciative for the help that they received.

After the April 5 community service projects were completed, a variety of Spirit Month activities followed and on April 15th the ECONET and Univera executive management hosted and served a healthy lunch to our Lacey, WA USA employees. The menu chosen was authentic Korean BBQ—Kalbi, Beef Bulgoki, Korean Chicken, Yakisoba, Chicken Fried Rice, Vegetables and Gyoza. Bill Lee, Gail Merritt, HY Sung, Stuart Ochilree, and Kelly Newcomer served an abundant amount of food to our employees. Shane McClellan, Stephen Cherniske, Byung Sohn, Rachel Wisby, Edwin Kamauoha, Rebecca Beauchamp, Yohan Lee, Teri Baker, Sharon Majewski, and Dave Frederick were in charge of the set up and clean up. Many employees gathered around in the Lacey Commons and shared a wonderful meal together sharing stories and laughter.

On Monday, April 25 the company partnered with the Red Cross to have an

에코네시안들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환자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The ECONETians chatted with the residents
by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lives and interests
- sometimes the residents were able to retrieve
details that were initially difficult for them to remember.



에코네시안이 새롭게 꾸민 다람쥐 서식지
(헤븐즈 세이크 야생보호구역)
Squirrel Habitat remodeled by ECONETians
(Heaven's Sake Wildlife Sanctuary)

4월 25일 월요일에는 레이스 사무실에서 적십자와 함께 하는 헌혈 행사가 있었다. 적십자에 따르면 헌혈 한 번으로 세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였다.

섬김과 나눔의 달의 마지막 행사는 4월 29일에 열렸다. 알로콕과 유니젠의 임원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모든 레이스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스크림 행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직원들은 막대사탕, 저지방 아이스크림, 다양한 토핑을 얹은 딸기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을 즐겼다. 기억에 오래 남을 즐거운 행사였다. 임원들이 나누어 주는 오후의 간식을 좋아하지 않을 직원이 있을까?

4월 한 달 동안의 다양한 섬김과 나눔 활동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어갈 계획이다. 많은 직원들이 이병훈 총괄사장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섬김과 봉사의 달 개최 연설이 인상적이었다는 말했다. 또한 4월 한 달을 봉사활동으로 함께 보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서 보람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미국 임직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2012년부터는 캐나다 지사에서도 미국에 이어 섬김과 나눔의 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onsite Blood Drive at the Lacey, WA location. The Red Cross states that for every blood donation they receive that there are three lives which are saved! We had many employees sign-up to donate blood to this worthy cause.

The last Sprit Month event was held on April 29 where the company leaders of Aloecorp and Unigen were good examples of servant-leaders. They served ice cream sundaes to all the Lacey, WA USA employees. The sundaes were a great success and employees gathered around and ate popsicles, low fat ice-cream, and strawberry cheesecake ice-cream with a variety of toppings. This event is memorable to employees, who doesn't love an afternoon snack provided by our company leaders?

Having the servant-first activities throughout the month of April was a great success and we plan to continue with this tradition in the years to come. Many employees shared with us that they really appreciated the Spirit Month kick-off meeting where Bill Lee shared his perspective on service. They also enjoyed having the month of April dedicated to acts of service. Our employees really appreciate working for a company that is socially conscious. In the recent US Employee Opinion Survey results, employees rated working for a company who supports the community as very important to them. Canada plans to join the US in sponsoring 2012 Spirit Month employee activities!

혁신 2011 유니베라 리더전진대회

Innovative 2011 Leaders' convention of Univera

유니베라 한국은 2011년 4월 28일 천안의 유관순 체육관에서 리더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약 2,300여 명의 부장급 이상의 간부 UP와 본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UP들은 유니베라 영업 컨설턴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식전 행사로 야외에 마련한 농장 모양의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최우수 UP에게 지급할 차량을 시승해 보며 전진대회 참여를 즐거워했다. 지역별로 소속 팀을 상징하는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맞춰 입은 UP들이 시간에 맞춰 지정 좌석에 모여 앉았다. 사기, 귀빈, 본사 임원이 입장한 후 사회자인 대구경북팀 신희 팀장이 리더전진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귀빈 소개 후에 곧바로 이병훈 총괄사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간부UP와 임직원들에게 Univera Serve First 활동을 소개하고 2014년까지 매출 2배 성장을 위한 유니베라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까지 4,300억 원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첫 번째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이다. 직접 재배, 직접 연구를 통해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 웰니스 제품을 출시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영업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대리점 체계를 구축하고 웰니스 전

Univera Korea held the Leaders' convention in the Yu Gwan-sun Gym in Cheonan on 28 April 2011. About 2,300 Univera Planners (UPs) of director, executive and head of distributors and employees of Univera.

The UPs were warmly welcomed by the sales consultants of Univera and took a commemorative photo in the photo zone shaped like a farm provided outdoors as an event before the opening ceremony. They tried delightfully to get on the car to be given to the most outstanding UP. UPs wore t-shirts of the same color symbolizing each team per region and sat in their designated seats on time. After the entry of the company flag, VIPs and executives, Heung Shin(team manager of Daegu Sales Team) announced the start of the Leaders' convention as the person presiding over the event.

Right after the introduction of VIPs, Chairman and CEO Bill Lee gave a presentation. Chairman Lee introduced the Univera Serve First campaign to UPs and employees and explained the new three Univera strategies for double sales growth by 2014. The first strategy to reach KRW 430 billion in sales by 2014 was enhancing the quality competitiveness of our products. For this, we were to obtain the trust of consumers by direct cultivation, R&D and distribution of wellness products by finding the healthy sources from nature. The second strategy is enhancing sales competitiveness. To this end, a sustainable system of distrib-



①



②



③

- ① 유니베라 사기 Waving the company flag of Univera
- ② 사기와 임원 입장 Executives' entry
- ③ 이병훈 총괄사장 연설 Bill Lee's speech



우수UP 시상 Bill Lee with the excellent UPs of 2010



이문세 축하 공연 A famous singer Moon-sae Lee's concert

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이다. 천연물 웰니스 기업으로서 기업브랜드를 강화하고 기업철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유니베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병훈 총괄사장이 매출 배가 전략을 설명하자 대회에 참가한 UP와 대리점 사장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지지를 표명했다. 연이어 신제품 힐탑가든에 대한 소개가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시상식이 있었다. 2010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팀장 이상 각 직급별 간부 UP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올해 시상식은 기왕의 임명장 대신 마련한 임명패와 수석지부장 이상 수상자의 드레스 퍼포먼스, 멋진 남자도우미의 에스코트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최우수 UP가 총괄사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하자 장내는 선망의 박수 소리로 일렁거렸다.

시상식 사이사이에 대리점에서 준비한 멋진 공연이 펼쳐졌다. 강서서부 대리점의 수화와 댄스, 대구북부 대리점의 현란한 발리 댄스는 노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2부 순서로 초대가수, 이문세 씨의 미니콘서트가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열정적인 라이브 공연에 푹 빠져들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UP들에게 유니베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신제품 힐탑가든 2종 세트와 속살크림, 그리고 도시락과 생수를 탤런트 김희애 씨의 얼굴이 찍힌 예쁜 쇼핑백에 담아 제공하였다.

utors is to be built and wellness experts fostered. The third strategy is enhancing brand competitiveness. As a company producing natural wellness products, we are to build up our corporate brand power and become a fully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based on our corporate philosophy to raise the brand value and ultimately enhance the brand competitiveness of Univera. As Bill Lee explained how to increase sales two fold, UPs and heads of Univera distributors participating in the event showed support by applauding and cheering in unison. This was followed by an introduction of the new brand 'Hilltop Gardens' at the cheering of participants.

Next, the award ceremony was held. It was a place to praise the hard work of team leader, director and executive UPs who have successfully concluded year 2010. Winners above the head branch manager grade showed a dress performance and were escorted by nice looking male helpers and given a plate prepared in lieu of certificates this year, drawing much envy. In particular, the Best UP of the year entered escorted by Bill Lee and was greeted with acclamation.

In between the award ceremony, great performances prepared by UPs from distributors were provided. The sign language and dance of UPs from the Western Gangseo Distributor and the bright belly dancing by UPs of the Daegu Buk-gu Distributor showed their efforts and passion. At the end of the award ceremony, invited singer Moon-sae Lee's mini concert was held for the second part of the day's events. All participants immersed in the passionate live concert.

At the end of the event, Univera gave Hilltop Gardens Basic Care Set, baby aloe cream, a lunch box and drinking water in a pretty shopping bag with the photo of entertainer Hee-ae Kim printed and prepared as a token of thanks to all UPs.

혁신 2011 유니베라 리더전진대회에 대한 UP들의 소감

“이병훈 총괄사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이 특히 감동적이었고, 앞으로 회사와 비전을 함께하여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동안 참여한 행사 중 제일 좋았네요. 특히 요번에 처음 시도된 수상자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내년에는 저도 우수 UP가 꼭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 일산 마두대리점 UP

“우선 회사의 준비와 기획에 감명을 받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최우수 수상자를 총괄사장님이 직접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유니베라가 저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문세 씨 공연도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 부산 남동대리점 UP

글 | 민지희 대리 | 전략인사팀 | 유니베라 한국

Innovative 2011 Impressions of UP of the Univera Leaders' Convention

“Bill Lee's presentation was especially impressive and made me think to work together with the company and its vision. It was one of the best events I have participated in so far. The winners' dress performance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was particularly pretty that I resolved to become an outstanding UP next year.”

- UP of Ilsan Madu Distributor

“Foremost, I was moved by the preparation and planning of the company and it was good to see the chairman personally escorting the Best UP of the year, though it was unexpected. I also gained confidence that I can also success through such opportunities provided by Univera. Moon-sae Lee's concert was really refreshing and fun to watch and listen to.” - UP of Busan Namdong Distributor

By Jihee Min Assistant Manager | Strategy HR Team | Univera Korea

유니베라의 건강과 미의 전도사

2010년 연간 최우수 UP 강서서부 대리점 하미월 본부장

하미월 본부장은 “남양알로에와 함께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잡으십시오”라는 문구로 생활건강설계사의 비전을 알리던 신참내기 설계사였다. 이번 리더전진대회에서도 빛나던 빼어난 미모는 10여 년 전 이미 남양알로에 사내 모델로 활동할 만큼 유명했다. 본인의 설명대로 “어린 나이에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방문판매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뚫고 우뚝 선 그녀는 요즘도 1분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활기차고 바쁘게 뛰고 있다.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나눔의 삶’을 전하는 UP로서 하미월 본부장은 대리점 아침교실에서 긍정적인 목표와 비전, 그리고 재미를 다른 UP들에게 제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미월 본부장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는 금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유니베라 제품으로 이웃에게 건강한 삶을 전달하고, 자신의 쌓은 노하우를 다른 UP들과 나누며, 가족과 이웃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미월 본부장과 그녀의 가족에게 유니베라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인생의 동반자이며 생활의 원천이다. 그녀는 유니베라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Missionary of Univera's health and beauty

Vice head of the Western Gangseo Distributor, Mi-wol Ha, earned the Best UP of the year 2010

Ms. Ha said, “I was once a new employee making known the vision of a lifestyle health designer with the slogan ‘grab the opportunity for a rich life with Namyang Aloe.’” The great look which shined again at the Leaders' Convention was famous already 10 years ago when she was designated as an in-house model of Namyang Aloe, the predecessor of Univera. According to her, the world of direct sales was a world “I jumped into without knowing much about it at a young age,” but she conquered the skills after many difficulties. Even today, she lives a busy and active life not wasting a single minute or second.

As an UP advocating “Health, Wealth and Purpose,” Ms. Ha is helping the morning class of distributors by providing positive goals, a vision and fun so as to grow together. Ms. Ha said, “I live by the golden rule of planning life as though I were going to live forever and live today as though I were going to die tomorrow.” To this day, she provides a healthy life to her neighbors with Univera products and shares her know-how with other UPs to pursue a rich life with family and neighbors. To Ms. Ha and her family, working for Univera is not just a job. It is their partner in life and the energizer for life. She confidently says she can change the health of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orld with Univera products.



유니베라, 대륙 횡단 투어

Design Your Life 2011 Ocean to Ocean Tour



밴쿠버의 차가운 해안에서
Bare feet in the cold water on the shore of Vancouver

2011년 4월과 5월에 걸쳐, 이병훈 총괄사장과 유니베라 북미 임원인 스투어트 오킬트리(Stuart Ochiltree)와 스티븐 체네스키(Stephen Cherniske) 등은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라! 2011, 대륙 횡단,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Design Your Life 2011 Ocean to Ocean Tour)' 행사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순회했다. 그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선 간부들과 함께 일선 어소시에이트들과 고객들을 만나 유니베라의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나눔의 삶'에 대해 설명하며 새 인생을 설계하도록 권유했다. 이제 유니베라 전직원들은 6월10일~11일 워싱턴 시애틀에서 열리는 '유니베라 컨벤션 2011'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순회의 주된 목적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20/20 비전을 북미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신규사업 프로그램과 도구들에 대해 어소시에이트들을 교육하고 유니베라의 여러 혜택과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컨벤션 2011'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순회는 4월 1일 노바스코시아 주 핼리팩스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다. 비는 몰아치고 기온마저 떨어져 엄청 추웠다. 뉴욕에서 올 예정이었던 이병훈 총괄사장은 행사를 거의 놓칠 뻔했다. 날씨가 너무 나빠 뉴위크 국제공항의 모든 비행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유니베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비행기를 전세 내어 험한 눈보라를 뚫고 비행하여 결국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의지와 용기에 감동했다.

중역들은 낚시모자를 쓰고 맨발로 핼리팩스 항의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즉석에서 '코러스라인(Chorus Line)'을 공연함으로써 핼리팩스 행사를 마무리 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단발 행사였던 이 공연은 그 후 연이은 모든 행사에서 '재미있는 모자(Funny Hat)'라고 불리며 상시 공연으로 발전했다. 중절모, 맥고모자, 모자가 달린 우산까지, 재미있는 모자를 쓴 임원들이 순회행사에 나섰다. 행사에 참

In April and May, 2011, Univera Executives Stuart Ochiltree, Stephen Cherniske and Chairman and CEO Bill Lee traveled across the U.S. and Canada to field-hosted events to meet with Independent Associates and their guests during the Design Your Life 2011 Ocean to Ocean Tour. The executives worked in synergy with key Field Leadership to present Univera's compelling story of Health, Wealth and Purpose leading up to Design Your Life...The Next Step: Univera Convention 2011 in Seattle, WA (June 10th~11th)

The purpose of the tour was to spread Bill Lee's 20/20 vision across North America while also; providing training on new business programs and tools, continuing to build momentum leading up to Convention 2011 and sharing the gift of Univera with prospects.

The tour started dramatically on April 1st in rain-swept, freezing Halifax, NS. Chairman and CEO Bill Lee, who was scheduled to arrive from New York City, nearly missed the event due to deplorable weather conditions that cancelled all flights from Newark International Airport. Determined to fulfill his responsibilities and commitment to Univera, he chartered a plane and took the risk of flying through a blizzard in order to make it to the event. All who attended were inspired by his will and courage.

The Executives wrapped up the Halifax event donning fisherman hats and bare feet to perform an impromptu "chorus line" in the cold waters of Halifax Harbor. This seemingly simple, one-time performance evolved into what became known as a "Funny Hat" tradition at each event. Everything from fedoras to sombreros to an umbrella attached to a beanie was provided for the Executives at every stop on the tour. Guests of Associates learned that although Univera is serious about business,



피닉스 행사장에서 Amigos in Phoenix



오렌지 카운티 행사장에서 A fourth Amigo was added in Orange County

여한 유니베라 고객들은 유니베라 사람들이 사업할 때는 진지하지만 때로는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유쾌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유니베라 임원들은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밴쿠버 해안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발을 담그면서 순회를 마무리했다. 동해안에 처음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서해안에 발자국을 남겼다. 마치 건설산업의 역사에 뚜렷이 족적을 남기겠다는 유니베라의 목표를 상징하듯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라! 2011, 대륙 횡단,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행사는 총 45일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14개 도시를 순회하는 수 만 마일의 여정이었다. 유니베라 임원들은 3천여 명에 달하는 어소시에이트들을 만났고 수백의 예비 어소시에이트들에게 유니베라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유니베라 임원들은 어소시에이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유니베라의 위대함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며 워싱턴 주 레이시의 본사로 귀환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신 이병훈 총괄사장, 스텐어트 오킬트리, 스티븐 체네스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남편 단은 유니베라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가질 것을 염원합니다.” - 리노 행사장에서 메리 리일리

“이병훈 총괄사장과 스텐어트 오킬트리, 스티븐 체네스키! “세계 제1”을 향한 진정한 약속을 그처럼 멋지게 제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는 귀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 시카고 행사장에서 로날드 그라브달

글 | 킴벌리 수워크 카피라이터 · 웹 콘텐츠 코디네이터 | 유니베라 미국

it's always good to be a little goofy from time to time.

In the end, the Executives wrapped up the tour exactly as it began; by dipping their bare feet in the cold water on the shore of Vancouver, B.C. Just as they left their mark in the beginning on the east coast, they closed it out by leaving their mark in the west, symbolizing the goal of Univera leaving its mark in the industry.

In all, the Design Your Life 2011 Ocean to Ocean Tour spanned 45 days and tens of thousands of miles through 14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Executives met with a total of approximately 3,000 Independent Associates and welcomed hundreds of guests to the Univera opportunity.

The Executives returned home to Lacey, WA with both great appreciation and a renewed belief in the greatness and potential of Univera, and are sincerely thankful to everyone that participated in each tour event during those 45 days.

“Thanks so much to Stuart Ochiltree, Stephen Cherniske and Bill Lee for being with us and sharing your philosophy and vision. My husband, Dan, and I look forward to a continued relationship with Univera.” - Mary Reiley | Independent Univera Associate | Reno Event

“Thank you Bill Lee, Stuart Ochiltree and Stephen Cherniske for such a fine presentation of your heartfelt commitments to be the “Best for the World”! Chicago greatly appreciates you.” - Ronald Gravdahl | Independent Univera Associate | Chicago Event

By Kimberly Suwak Copywriter · Web Content Coordinator | Univera USA

에코넷 구성원 의견조사

ECONETian Opinion Survey

EOS 실시 배경 및 목적

2011년 2월, 에코넷은 에코넷의 동과 서, 글로벌에서 동시에 구성원의견조사(이하 EOS)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에코넷의 기업문화와 가치를 담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EOS의 원칙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향후 최소 4년간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한다. 설문조사는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다. 회사의 정책과 개선 노력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려면 같은 설문을 반복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코넷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한다. 동일한 설문을 매년 이스트와 웨스트에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각 회사의 결과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고, 에코넷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사소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EOS 결과를 주요경영지표로 활용한다. 조사 결과 변화를 경영진과 임원의 KPI로 설정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EOS 결과를 경영 및 조직운영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Background to and objective of EOS

In February 2011, an opinion survey of ECONET employees (hereafter EOS) was conducted throughout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ECONET and global offices. The survey was developed by ECONET with the help of an external expert organization embracing the corporate culture and values of ECONET. The three large principles of EOS to be conducted not only this year but also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we will use the same survey for a minimum of four years in the future. The survey is not to be conducted once and finished with.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changes in the corporate policies and efforts made to improve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o repeatedly conduct the same survey.

Second, the survey is to be conducted on a global scale with all ECONET employees participating. Conducting the same survey each year both in the East and West enables comparing the results of each company and using them as materials for official communication at the pan-ECONET scale.

Third, we will use the EOS results as major business management indicators. By setting the changes in results as the KPI of executives and managers, induce active interest in it. Then, we will use the EOS results as indicators for busines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EOS 참여사 및 응답자

본 설문조사에는 에코넷 이스트 총 333명(한국 184명, 중국 119명, 러시아 30명)과 에코넷 웨스트 총 106명(미국 96명, 캐나다 8명, 멕시코 2명)으로 총 439명이 참여하였다. <표1, 그림 1>

EOS 문항의 구성

설문문항은 전문인사컨설팅 기관인 머서(Mercer)의 컨그루언스(Congruence) 모델을 토대로 만족요인(매개변수)은 일, 구성원,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리더십 등 5가지 요인으로 결과변수는 탄력성, 이직 의도, 자부심과 몰입, 전반적 회사만족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2>

EOS participants and respondents

A total of 439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333 people from ECONET East (184 in Korea, 119 in China and 30 in Russia) and 106 from ECONET West (96 in the United States, 8 in Canada, and 2 in Mexico). <Table 1, Drawing 1>

Composition of EOS questions

The survey questions were based on the Congruence Model of Mercer, a consulting firm specializing in human resources, and satisfaction factors (variables) were divided into five factors of work, people, formal organization, informal organization and leadership. The endpoi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elasticity, desire to change jobs, pride and concentra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company. <Table 2>

<표 1> 2011 에코넷 EOS 응답자
<Table 1> 2011 ECONET EOS respondents

구분 Category	응답자(명) Respondents (number)	비율(%) Ratio (%)
한국 Korea	184	41.9%
중국 China	119	27.1%
러시아 Russia	30	6.8%
웨스트 ECONET West	106	24.1%
계 Total	439	100.00%

<표 2> EOS 문항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EOS questions

구분 Category	설명 Explanation	예시 Example
일 Work	일 그 자체, 근무환경,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만족 Satisfaction with work itsel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methods.	나의 업무는 흥미롭고 도전해 볼 만하다. My work is interesting and challenging
구성원 People	타구성원들에 대한 태도, 만족도, 구성원들의 역량 및 업무태도에 대한 인식 Attitude toward other members, level of satisfaction, the capability and working attitude of members.	나의 상사는 좀 더 우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My supervisor takes the lead in achieving goals and provides a good example for his/her employees to follow.
공식조직 Formal organization	인사운영/제도, 정책, BSC 등에 대한 만족 Satisfaction with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olicies and BSC, among others.	우리 회사에서는 대체로 능력 있고 성과가 뛰어난 직원이 승진한다. In my company, employees whose performance excels tend to be promoted.
비공식조직 Informal organization	구성원들이 따르는 비명시적인 원칙이나 가치, 문화 Unstated principles, values and culture members follow.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활발히 공유한다. People a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is needed in my company.
리더십 Leadership	구성원을 리드하는 리더들의 행동양식과 이에 대한 만족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behavior of leaders leading the members.	경영진은 비전 및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The management team conveys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company in a clear manner.

설문 결과 및 시사점

에코넷 전체적으로 구성원 만족도 수준은 국내 시장 대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 시장과 에코넷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의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시장 대비 에코넷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에코넷 전 계열사를 서로 비교하여 부족한 항목의 보완 활동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각 사마다 강화해야 할 분야를 따로 정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니젠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에코넷 한국 회사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니젠의 전략 방향을 감안하여 집중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urvey results and lessons learned

The level of satisfaction among ECONET members was overall not bad compared to the Korean market. But we shouldn't simply stop at comparing whether we are better or worse vis-à-vis the external market.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nhance ECONET's advantages compared to the external market and especially select areas for enhanced strategies.

Al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reas we lag behind by comparing all companies of ECONET. Even if the level of overall satisfaction is high, each company needs to continue making efforts to select areas for improvem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Unigen Korea, it scored high among Korean companies of ECONET for some time. But it should not stop at this but select areas for focused improvement considering its strategic direction and continue to pursue commensurate activities.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similar tendencies are found in both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even when compared with other Korean companies. In all

〈표 3〉 국내 타기업 및 에코넷 글로벌 전체 수준 비교 (5점 척도)

〈Table 3〉 Comparison of levels between other Korean companies and the global ECONET (5 points scale)

구분 Category	신뢰 Trust	일 Work	구성원 People	공식조직 Formal organization	비공식조직 Informal organization	리더십 Leadership	조직효과성 Efficiency of organization
국내 타기업 Other Korean companies	(국내값 없음)	3.20	3.48	3.00	3.16	3.39	3.57
한국 전체 Korea	계 Total	3.44	3.61	3.15	3.25	3.43	3.68
	유니베라 Univera	3.33	3.31	3.63	2.98	3.16	3.38
	네이처텍 Naturetech	3.49	3.44	3.61	3.27	3.31	3.64
	유니젠 Unigen	3.66	3.49	3.68	3.41	3.49	3.81
	에코넷 ECONET Korea	3.25	3.09	3.32	2.82	2.85	3.40
중러 전체 China & Russia	계 Total	3.84	3.7	4.00	3.43	3.64	3.96
	중국 China	3.95	3.81	4.13	3.53	3.80	4.10
	러시아 Russia	3.37	3.28	3.53	3.06	3.05	3.39
웨스트 전체 ECONET West	3.77	3.61	4.02	3.26	3.45	3.71	3.87

*범례: 빨간색(상대적으로 부족한 항목), 파란색(상대적으로 높은 항목)

*국내 타기업: Congruence model을 사용하여 최근 3년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종업원 300명 이상의 국내 대기업

*Legend: in pink (areas relatively lagging behind), in blue (areas relatively scoring high)

*Other Korean companies: Korean conglomerates with over 300 employees wher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last three years using the congruence model.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각 사의 과제(진행 중, 6월 내 완료)
 네이처텍 : '인재유지와 복리후생'을 우선과제로 삼아 검토 중임. '6월 경영회의 발표자료' 발췌
 Each company's tasks provided based on the survey (ongoing and to be completed in June)
 Naturetech is reviewing "Retention and Benefit Plan" selected as a task of priority. An extract from the presentation materials for "Business Management Meeting" on June.

흥미로운 점은 국내 타기업과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한국 회사나 해외 회사나 공히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조직이나 간에 전반적으로 구성원 만족도는 높지만 공식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그렇더라도 공식조직 즉, 인사운영/제도 등에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사원칙에 입각한 운영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에코넷의 경영진과 임원, 경영지원조직은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경영지표로 삼아 꾸준히 변화를 관찰하고 각 변수와 환경, 조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맺음말

에코넷은 2006년 이래 Phase I~Ⅲ를 거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여러 번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취지 및 문항은 매년 달랐지만 결과는 언제나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에코넷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변화,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그 구체적 방안을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실제 액션플랜의 과제화와 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는 회사의 일방적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까닭에 에코네시안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바쁜 연초임에도 에코넷 구성원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에코넷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11월에 실시할 제2차 구성원만족도 조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글 | 인사팀 (임태규 차장, 이정현) | 에코넷

organizations,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among members is high, but that of formal organization is low. Even then,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formal organization, that is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systems, to raise the level of satisfaction among members with rational improvement and personnel appointment principles.

ECONET's managers, executives, and those supporting business management will continue to make active efforts to steadily observe changes based on the major business management indicators of the survey and improve each variable, environment and condition.

Conclusion

ECONET has conducted surveys several times of members since 2006 through phases I to III. The objective of the surveys and questions were different each time, but the results always showed similar messages. That showed "ECONET needs to change." But actual changes and innovation did not occur because members did not sufficiently share the dire need to change and the specific countermeasures to take from it. Furthermore, there was the lack of actual application, conversion of the results into tasks and their execution. Change does not occur through unilateral leadership of the company but rather through the demands of active will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members. As such, all ECONETians should gather all strength in unison for change and innovation.

We thank all ECONET employees for having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despite your busy schedule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 ask for your cooperation for the second survey that will be conducted in November.

By HR (Taekyu Yim, Jeong-hyun Lee) | ECONET

우리의 유니베라 이야기

20년간이나 개업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본 후에야 비로소 나는 전반적으로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보람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환자의 반응은 점점 더 느려졌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예전에 중년 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증상이 나타났다. 나는 좀더 좋은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을 계속했고 좀더 훌륭한 진찰의사 겸 전문의사가 되려고 3년간 신경학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통증과 감염에 대한 재활의학과 영양학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3년의 교육이 끝난 후, 나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질병과 통증을 '치료'할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왔다.

10년 동안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제공해 왔지만 극적인 효과를 경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은 종종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계속 먹이고 나도 하루에 30알 이상씩 먹었다. 그런데도 내 신체적 상태는 계속 하향곡 선이었다. 그저 노화 과정이려니 생각하기도 했다. 내 몸은 장기간 계속한 운동과 일주일에 수 백 명씩 환자를 치료하던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에 동료 위델(Wedell) 박사가 새로운 노화방지 음료

일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My staff and I at work



Our Univera Story

It was after 20 years in practice, seeing thousands of patients that I came to realize that as a whole, the general patient population was getting more and more unhealthy. Treating people was still very rewarding. However, the patient responses became slower and even younger patients were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we had previously seen more in the middle age patient. I went on a quest to discover better methods to treat and took a three year neurology program to be a better diagnostician and practitioner. This training included hours in rehabilitative medicine and nutrition for pain and inflammation. After three years, I came out with a renewed sense of purpose and more tools to "cure" the sick and suffering.

For ten years I offered nutritional supplements but really never saw dramatic results. I often heard, "I think the supplements are helping." So, I continued and took my own supplements, over 30 per day. The experience that I had was a continual downward spiraling of my own physical being. I just thought it was the normal aging process. All the years of sports and treating hundreds of patients a week was just taking its toll on my body.

Then, in 2005, my associate, Dr Wedell, had been taking a new anti-oxidant drink and was experiencing "life-changing" results. Because of the trusting relationship that we had over a 20 year period, I agreed to try the product, Xtra. I was doubtful that I would notice anything, but I didn't miss a dose. I continued for a month, and then decided to go to a meeting (reluctantly) to hear a pharmacist (Ron Boyanovsky) speak about the products. It was a compelling story and I started on a quest to find out more. I read Stephen Cherniske's books. And I continued to take the product and could not deny the incredible results I was experiencing; more energy, less stress, more clarity, better sleep, aches and pains going away! It was amazing to me. Why did this product work so well?

The rest is history. Lisa and I have been sharing and helping people since May of 2005. We went Diamond in four months because I didn't know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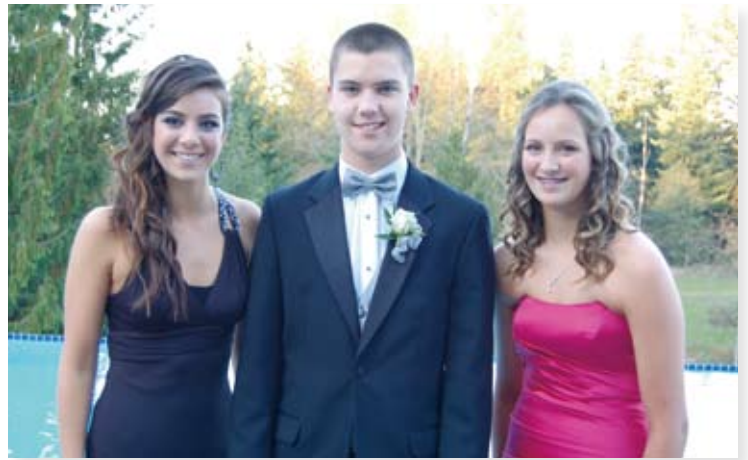
수를 마시기 시작한 후 '인생이 바뀌는' 효과를 경험했다. 2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맺어왔던 신뢰 관계 때문에 나는 그 음료수, 엑스트라(Xtra)를 한 번 먹어보겠노라고 말했다.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 번도 복용을 거르지는 않았다. 한 달간 복용한 후 약사인 론 보야노브스키(Ron Boyanovski)의 설명을 듣기 위해, 내키지는 않았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탐구해 보기로 작정했다. 스티븐 체네스키의 책도 읽었다. 그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스트레스는 줄고 정신은 더 맑아지고 잠은 더 잘 자게 되었고 통증과 고통은 사라져 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던 말인가?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는 것이다. 리사와 나는 2005년 5월 이후 사람들에게 이 음료를 전하고 있다. 일이란 원래 그렇게 전개되나 보다. 우리는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가 되었다. 물론 힘든 여정이었으나, 현재 우리는 2만 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사업을 키우는 일과 진정한 건강 플랜을 공유하는 일, 양면 모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두 가지 일 모두 단순한 사업을 넘어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경험이다. 나는 사람들이 건강과 풍요, 나눔의 삶으로 구성된 총체적 건강함을 성취하도록 돕고 싶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니베라 제품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우리가 취급하는 많은 제품들 중에 유니베라는 내가 권하는 유일한 제품이다. 척추지압사인 내 동생 팀 커프맨 박사도 유니베라의 비전에 심취해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가 되었다. 그도 치료에 유니베라 제품을 사용하여 일리노이와 시카고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 42년 동안 미용사로 일하시던 나의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유니베라의 골드 어소시에이트가 되어 받는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원을 갈 예정인 내 딸 캐시(Cassie)는 브론즈(Bronze) 어소시에이트이다. 그녀의 꿈은 장래에 프로 유니베라 의사가 되고 블루다이아몬드(Blue Diamond) 어소시에이트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커프맨 가족에게 유니베라는 가업이다.

유니베라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비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리사와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유니베라의 '웰니스 삼위일체'의 구성 부분 하나하나를 만끽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우리는 유니베라의 방향과 의도를 알고 있고 2020년에 어떻게 업계 10위권에 들지도 알고 있다. 이처럼 멋진 모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신 모든 에코넷 사람들에게 감사 드린다.

글 | 닥터 마이클 & 리사 커프맨 부부 | 유니베라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 | 스노호미시, 워싱턴



우리 아이들 Our children

couldn't be done that way. It has been a great journey. We have over 20,000 people in our organization now and growing. Both sides of the business are extremely rewarding; building the business as well as sharing in a true health care plan. Both transcend the normal business into life altering experiences. I love helping people achieve the total wellness model of Health, Wealth and Purpose.

In my practice, I utilize many of the Univera products depending on the patient's condition. Because we have such a variety of products, Univera is the only brand that I promote. My brother, Dr. Tim Kaufman, a chiropractor, caught the Univera vision and also went Diamond. He uses the Univera products in his practice as well and is building a great business in Illinois and the Chicago area. My mother, who was my very first Executive Associate just retired after 42 years as a cosmetologist in large part due to the residual income she receives as a Gold Associate in Univera. My oldest daughter Cassie is going to Pre-med school and is qualifying as a Bronze every month. She wants to be a Pro-Univera medical doctor and Blue Diamond in the future. So, for the Kaufman family, Univera is a family business.

With Univera, we have it all. Bill Lee's vision is bigger than we could have ever dreamed. Lisa and I are all in to help change the world. We enjoy all parts of the "Wellness Triangle" and have had the pleasure of serving o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ast few years. We see the direction and intent of Univera and how we are going to reach the top ten in our industry by 2020. Thank you to everyone in the ECONET for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this incredible venture.

By Dr. Michael and Lisa Kaufman | Univera's Diamond Associates | Snohomish, WA

TTS에서 Qmatrix까지

편집자 주 이번호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기고이다. 에코넷 R&D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조태형 사장이 우리의 선구적인 업적인 알로에 표준화 정립 과정에서 시행한 알로에 분말화에 대해 소중한 글을 보내 주었다.

우리 회사가 다루는 천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후 변화나 산지에 따라 성분 조성의 변화가 대단히 크다. 예로부터 경험적으로 구축된 천연물의 재배와 채집, 이용은 이런 변화 속에서 필요한 성분이 극대화된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아직 물질 성분을 직접 분석하지 못하던 시절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연물의 물질 성분을 직접 분석하여 인체에 이로운 성분의 변화를 바로 관리한다. 이때 품질 관리 보증이라 함은 인체의 생리 기능을 도와 정상화하는 물질의 생리활성기능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균일한 품질이 필요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치를 제공해야 비로소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제조자일 것이다. 어떤 때는 우수한 제품을 어떤 때는 열등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일 뿐이다. 즉, 물질의 변화 관리야말로 품질보증의 첫 단계인 것이다.

사실 1990년대 초는 알로에 산업계뿐만 아니라 건식업계 전체가 소위 '산업의 초기 현상'을 보이던 시절이었다. 반짝 유행하는 소재가 만병통치약으로 등극하여 유행하던 시절이라 어느 누구도 특별히 성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알로에 제품도 단순히 액상으로 분말로 혹은 고형제로 만들어져 팔렸다. 그 속의 물질 성분의 관리는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당시 알로에 원료 가공공정은 알로에 껍질을 벗겨 착즙하고 적절하게 농축하는 것이었다. 우리 남양알로에도 알로에 겔을 활용한 제품은 액상원료를 사용했다. 그런데 액상원료는 상온에서 별질·변패되기 쉬웠다. 또 불용성 성분은 보관 중에 침전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업 초기부터 제품의 원료를 표준화하고 과학화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건조분말화를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건조분말화는 이점이 많다. 첫째, 보관상 이점이다. 냉장 보관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액상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에 의한 변질·변패나 불용성 성분의 침전에 의해 발생하는 품질 균

From TTS to Qmatrix

Editor's note <The lives of fellow ECONETians> in this volume is a specially written by COO Taehyeong Jo about making dried aloe powder in the process of setting standard of aloe product, the trailblazing achievement of ECONET.

Unlike manufactured product, natural products we make have different composition according to climate and country of origin. In the past when the scientific analysis was not widely used, we had to use experience to maximize the ingredient we need in the process of cultivation, harvest and use.

Nowadays, the ingredients of natural product can be analyzed and be controlled to maximize beneficial effects to human body. Quality assurance means to guarantee the stimulating function of substances to help healing organism of human body. To guarantee the quality of product, product quality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hould be the same. A worthy producer should be able to provide quality product without fluctuation. A manufacturer which provides products which is good in one day and inferior in another is only unscientific, unreasonable and immoral company. In other words, controlling product quality is the first step of quality assurance.

In the early 1990s, the entire healthy functional food industry was in the beginning stage. A string of "magic substance" became instant fads, and they were promoted as if they were panacea. Aloe product was sold in liquid, powder, or in tablet form. The quality control of substances was largely neglected. The aloe leaves were peeled, juiced, and concentrated to make a product. Namyang Aloe also used liquid raw material in products using aloe gel. However, the liquid was easy to spoil in room temperature, and insoluble substances settle to the bottom made it difficult to make even quality product.

For those reasons, we decided from the early stage of business to make scientific and standardized substances, and our solution was to make dried aloe powder. It has a plenty of merits. First, dried powder is easy to store. The cost to keep it in fridge can be saved, and also the problem of uneven quality due to precipitation and decay from bacteria and microor-



일성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부피를 줄여 물류비용이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는 경우에 따라 액상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고형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는 인체에 유용한 만큼 충분한 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알로에는 거의 99%가 수분이고 고형성분은 불과 0.5-1% 정도다. 500g-1kg 하는 잎이라도 고형성분은 불과 2.5-5g, 많아도 5-10g 정도밖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니 수분이 대부분인 원물로는 인체에 필요한 만큼 고형성분을 섭취할 수 없고 억지로 섭취하려면 수백 개의 알로에 잎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분말 처리하여 농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알로에 원료의 건조분말화가 쉽지는 않았다. 건조기술은 인류의 식품 가공·저장기술 중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로서 열을 가해 건조하고 바람을 불면 더 잘 건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건조는 분무건조(Spray Drying) 방식과 동결건조(Freeze Drying) 방식으로 나뉜다. 분무건조 방식이란 흔히 우유를 건조할 때 쓰는 방식으로 안개처럼 고온 수용액적을 분부하여 순간감압 고온건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열과 송풍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다 보니 건조 대상물의 바깥쪽부터 건조되는 소위 케이킹(caking) 현상이 발생해 속으로 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더 높은 가열이 필요하다.

ganism can be solved. Second, the cost of transportation and storage can be reduced because the dried powder takes much smaller room. Third, the powder can be processed to make both liquid solution and solid product, so that it is easier to use in a variety of products. Fourth, the reduced mass makes it easier to take aloe substances that are beneficial to human body. Aloe plant is 99% water, and the effective substances take only 0.5% to 1% of the weight. Even a leaf that weights 0.5 to 1 kg contains 2.5 to 5 grams or 5 to ten grams of dried substances at best. Thus, it is impossible to take enough amounts of aloe substances to make a tangible benefit to human body in its raw form. Think of eating hundreds of aloe leaves. In dried powder form, the problem is easily solved.

Of course, making dried powder out of aloe leaves was not easy. Desiccation is one of the most ancient human skills to preserve and process food. Everybody knows heat and wind helps the process of drying.

In general terms, there are two ways of drying; spray drying and freeze drying. Spray drying is used in making milk powder. A fine mist of aqueous solution is sprayed and the pressure is reduced in hot temperature for an instant. However, the heat and wind applied from outside causes caking phenomenon in which only the outside of the material is dried and

동결건조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40℃에 이르게 하여 물체가 갖고 있는 수분을 동결한 후 이를 감압 조건에서 상온으로 승온하여 수분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화되도록 하는 건조방식이다. 의약품 중에 주사제 제형의 성분의 파괴·변질을 극소화하기 위해 분말 바이알로 만들고 사용할 때마다 증류수를 주사기로 주입하여 용해시켜 사용하는 제품이 있다. 이때 분말이 증류수에 쉽게 용해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공층의 미립자 분말로 건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이용하는 방식이 동결건조 방식이다.

1990년대 당시 알로에 업계 기술로는 알로에의 점성 때문에 알로에를 건조분말화하기 위해서는 매체로서 건조핵을 구성할 수 있는 부형제를 사용해야만 했다. 또 건조분말화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나마 생산량도 적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알로에는 거의 없이 부형제만을 넣은 가짜 원료를 시장에 내놓는 악덕 기업도 있었다. 사실 천연물이 전혀 과학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물의 진위와 양·불량의 구분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것이 성분분석과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품질보증기반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남양알로에가 채택한 표준화된 분말 원료의 사용은 TTS 공법으로 위생적이고 기능 성분의 파괴 변질을 극소화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자연의 혜택을 담은 천연물을 고스란히 우리 고객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이자 제품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을 위한 R&D 기술의 첫걸음이었다. 건조분말화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알로엑스 골드 제품이다. 업계 최초로 분말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그때 잘 되는 사업분야, 소재분야를 걸논질하던 어떤 대기업이 알로엑스 골드를 본떠 단지 가격만 약간 낮춘 채 일반 매장에 제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생물 오염 증식에 의해 순식간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매장에서 철수했다. 연구개발과 노력은 등한시한 채 알팍한 술수로 흥대를 낸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우리는 건조분말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동결건조된 분말과 품질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건조공정을 단축하고 물질의 내부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원적외선(Ultra Infra Red Wave)을 이용한 큐매트릭스(Qmatrix) 공법을 탄생시켰다. 큐매트릭스 공법에 의한 건조는 물질의 내·외부에서 동시에 수분이 증발되어 다공층의 분말화가 가능하다. 건조온도를 낮고 짧은 시간에 건조되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필요할 때 쉽게 물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분말 과립을 섭취할 때에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다.

알로에겔 건조분말의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우리 남양알로에가 최초로 시행했고 이것이 업계의 표준이 되어 오늘날에도 활용되고 있다.

글 | 조태형 COO(Chief Operating Officer) | 에코넷

the heat does not reach the center.

Freeze drying is to lower the temperature to -40℃ in short time to freeze the water in the substance, and the temperature is later to be raised in low pressure to make the water evaporate directly without staying in liquid state. There are medicines in dried powder state to minimize spoiling of the substance, and later dissolve in distilled water to be administered to patients. The powder should be able to dissolve easy and fast in distilled water. To make fine, porous powder which easily dissolves in water, the freeze drying technology is generally applied.

In the 1990s, the viscosity of aloe made it necessary to use diluting agent to make dried powder. Making dried powder out of aloe took longer time and more energy, and the yield was smaller, too. Some of immoral companies sold fake products which even does not contain aloe. Without scientific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authenticity of real aloe product from defective products and fakes. That is why the substance analysis, standardized process and quality assurance is necessary.

The method to make dried powder, which Namyang Aloe selected as standard was using TTS technology which is hygienic and also minimize damage to functional substances. It was our first step of R&D technology for quality assurance in a move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customers. The first product we made using this technology was Alo-X Gold used dried aloe powder for the first time in this industry.

A big company who wa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booming industry made a product which was a copy of Alo-X Gold at a slightly lower price. However, the product was vulnerable to microorganism and decaying, and naturally it was out of market in a blink. The result was predictable because the company was just jumping on a band wagon without making any R&D efforts.

We developed the dried powder technology further, and completed Qmatrix technology using ultra infrared wave which cut down processes and also deliver the energy throughout the substance. The quality is the same with freeze drying, and the technology enables water to evaporate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substance at the same time, so the powder is fine and porous. The heat to dry the substance is relatively lower, and the process takes shorter time. Also, the powder dissolves easily in water, making the absorption of the body faster.

Namyang Aloe, a former self of ECONET, was the first to use dried aloe gel powder, and it made the industry standard that is widespread today.

By Taehyeong Jo COO(Chief Operating Officer) | ECONET

에코넷 북클럽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 없는 벗이다.
책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자,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찰스 W. 엘리엇

ECONET Book Club

Books are the quietest and most constant of friends;
they are the most accessible and wisest of counselors,
and the most patient of teachers.
Charles W. Eliot

상처 치유하기



제목 나는 지진이다: 아주 특별한 나에 대한 상상
저자 마르탱 파주 글 | 강미란 역 출판사 특

Heal Wounds

[Title](#) Je suis un tremblement de Terre (French Edition) / I am an Earthquake
[Author](#) Martin Page

에코넷 북클럽 원고를 쓰기 위해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다 구석에 쌓인 책들 중에 작고 얇은 책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지진이다』 제목에서 벌써 작가는 무슨 의도로 이런 제목을 썼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다.

“시탕 공장에 폭탄이 떨어졌다. 구조 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공장 직원 모두가 설탕과 젤리 속에 잠겨 버린 것이다. 몇 사람은 거대하고 괴상한 곰돌이 모양의 마시멜로가 되어 버렸다. 그곳에는 우리 부모님도 있었다.”(p 10)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은 더 이상 사탕을 먹지 않았다.

전쟁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채 양부모를 만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소년은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그 후 소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흔들렸다. 벽은 무너지고 교실과 운동장은 금이 갔다. 의사는 “이 아이는 지진인 것 같습니다.”(p 22)라고 진단한다. 이제 마을 전체가 아이는 지진임을 알게 된다. 소년이 마을을 떠나야 다른

To write for the ECONET Book Club I pondered what book to pick when a thin and small book among books stacked in a corner caught my attention. The book, “I am an Earthquake” made me curious to find out with what intention the author entitled the book “I am an Earthquake”.

“A bomb fell on a candy factory. A relief squad arrived, but no one survived. All employees of the factory were buried in sugar and jelly. People had become marshmallows of a strange bear shape. Among them were my parents.”(p 10) The boy never again ate candies after having lost his parents in war.

The boy led an ordinary life with foster parents carrying the scars of war in his heart when one day, he felt weak shaking. Afterwards, wherever he went, the world shook. Walls fell down and classrooms and fields cracked. The doctor diag-



사람들이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겼다. 주변사람을 다치고 싶지 않은 아이의 마음과는 달리 지진은 더욱 커져 간다. 지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 지진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도 지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p 64)

그러나 아이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숲으로 향한다. 숲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변화를 발견한다. 어떠한 지진도 자신을 파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삶과 미래에 대해 꿈을 갖기 시작한다. 마침내 자신을 찾은 전문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해결책을 만나게 된다. 소년과 땅을 분리하는 것, 바로 물이었다. 지진을 느낄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한 소년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간다.

“나 자신의 불행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른 무언가에 정신을 빼앗겨야 한다. 그리고 내 영혼과 정신이 이 세상을 사로 잡도록, 세상 모든 것에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숲 속에서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아직은 알지

nosed, “This child seems to be an earthquake” (p 22). As such, the entire town learned he was an earthquake. Some claimed the boy had to leave town for others to survive. Opposite to the wish of the boy not to harm people around him, the earthquakes became more severe. Earthquake experts said, “No, you can’t prevent earthquakes. So, you’ll have better learn to live with earthquakes.” (p 64)

But the boy decided to leave home and headed to the forest. He observed and focused on nature in the forest when he discovered a change. He realized no earthquake could destroy him and started to dream about this life and his future. Right when the boy returned home with the expert who found him, he found a solution. What could divide the boy and earth was water. He realized that whenever he felt an earthquake if he went into water, the earthquake stopped. Only then could he lead a normal life.

“Not to lose one’s mind dwelling on one’s misfortunes, I must concentrate on something else. And then I should pay attention to everything in the world for my mind and spirit to capture the world. I realized this while being in the forest. For this, I still don’t know what method to use, but I no longer have fear in my heart. Even if we may have differences, we are all earthquakes.” (p 76)

Through earthquakes, the author symbolically shows how a hurt child is destroyed by adults’ indiscriminate violence and how one may suffer from an unimaginable pain. This could be me hurt in the past and present or others, my family, colleagues and even my children I have hurt, I was surprised to find out.

“Is it because I am a bad kid?” It shows how dangerous it is to think “if only I did not exist others wouldn’t suffer,” which at times kills people. I know well that if suppressed anger and wounds unconsciously emerge, the boy would be recognized as a dangerous existence and fear himself.

The boy’s solution was found nearby. “Water” is at the root of our memories, that is, it is the time we float in our mothers’ amniotic fluid. The time we were protected from all dangers

못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모두 지진이니까.”(p 76)

지진을 통해 작가는 어른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상처받은 아이가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과거와 현재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상처 준 다른 이들, 나의 가족, 동료, 심지어 내 자녀일 수도 있음에 나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가? 나만 없으면 모두 불행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며 때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억눌린 분노와 상처가 무의식으로 표출되는 바람에 소년은 아주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소년의 해결책인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 '물'은 우리의 근원적인 기억, 즉 어머니의 양수 속에 떠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듯하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던 그 시간, 그 완전한 사랑만이 상처를 위로하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사랑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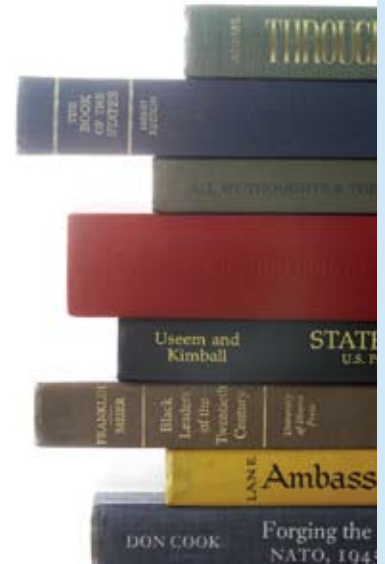
에코넷의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는 우리 에코네시안 모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꿈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길이라 믿는다.

글 김현진 과장 | 생활활성검정팀 | 유니젠

and pain in the world and only that perfect love is the power to mitigate pain and kill anger. In life, we may be the victim of violence or the attacker. The solution is to love. Only consideration for and interest in others can heal the wounds and help emanate beauty from inside.

Doesn't ECONET's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start with love from all ECONETians? I believe making efforts to become the water for each other is the way to move forward toward our dream.

By Mari, HJ Kim Senior Researcher | Pre-Clinical Development team | UNIGEN



(에코넷 북클럽)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만듭니다. 긴 글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목만을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에코넷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책을 편집실로 알려주세요.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ECONET Book Club) is waiting for your recommendation. You do not have to write a long article.

You can just inform us of a title of a book. What would you like to recommend right now?

Please tell us about your interesting reading experience, and w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fellow ECONETians.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유니젠 산책로

유니젠의 4월과 5월은 어딜 가나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이다. 청강교에서 유니젠 건물에 이르기까지 구불구불 긴 도로는 식사 후 산책을 하며 봄꽃의 향기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강현우 과장 | 총무인사팀 | 유니젠 한국

Unigen Promenade Road

April and May for Unigen is a beautiful time to find full blossomed flowers everywhere. The long winding path from the Chungkang Bridge to the Unigen building is an ideal path to take a walk after a meal and to enjoy the scenery and scent of spring flowers.

Hyun-Woo Kang Manager | HR & General Affairs | Unigen Korea

(에코넷 명소 사진전)은 단순한 관광 명소의 기념 사진이나 단체 사진이 아니라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의 사진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도 그곳에 에코넷 사람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에코네시안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 에코네시안들이 사색에 잠기는 공간, 회사 안과 밖에서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는 장소 등 여러 이야기를 담은 장소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세요. 『에코넷웨이』에 사진이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오창 풋살 경기장

유니젠에서 출발하여 오창읍에 진입하기 전에 산속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조금만 오르다 보면, 펜션과 잘 어우러져 있는 풋살경기장을 만날 수 있다.

유니젠은 매년 봄과 가을, 퇴근 후에 전임직원이 모여 풋살경기를 한다. 물론 남녀가 함께 경기를 하는데, 그 때 느끼는 재미와 결속은 상상 이상이다. 경기가 끝나고 너나 할 것 없이 경기장 옆 바비큐 파티장에 모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강현우 과장 | 총무인사팀 | 유니젠 한국

Ochang Futsal Stadium

Starting from Unigen and before entering Ochang Town, if you climb a bit along the mountain path, you will find pensions and a Futsal stadium laying in harmony with nature.

All employees of Unigen play Futsal game in the spring and autumn every year after work. Of course both men and women play together and have a fun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beyond imagination. At the end of a game, we all gather in the barbecue party in front of the field to enjoy a tasty meal and fun time.

Hyun-Woo Kang Manager | HR & General Affairs | Unigen Korea

"My favorite place of ECONET" is not just for group pictures or pictures of tourist attraction, but for places where memories of ECONETian is abound.

Picture of tourist location is also accepted only if the place held memories of ECONETians.

We are looking for places that have meanings for ECONETians, places where ECONETians stop and ponder,

places where ECONETians gather and spend time together, whether the place is inside or outside of the company.

Send us photos of your favorite place with short explanation. For those whose photo is published in ECONETWAY, a small gift will be given.

내 추억 상자 속의 연 싸움



Kite runners in my memories

편집자 주 이번 호부터 '내 고향의 미'란 주제로 글을 받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추억과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전통공예, 건축물, 노래 등, 미술과 음악 - 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있을 겁니다. 소재에 제한은 없습니다.

Editor's note From this volume, we collect articles under the theme of "the beauty of my hometown." We invite you to share your memories and what you are proud of about your home country. Traditional handicraft, architecture, song, art and music; anything you can think of can become the subject.

내 유년시절을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통영 바다', 그리고 '통영 연'일 것이다.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호수처럼 잔잔한 통영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통영 연의 매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통영 연은 원래 이순신 장군께서 통신 및 암호 수단으로 사용하신 일종의 '신호 연'이라고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한 연은 '반장 눈쟁이'(반장은 통제사령관을, 붉은 원은 낮을 의미한다)라는 이름의 연이다. 섬세한 붓 터치로 꽉 채우지 않은 검은 바탕에 붉은 원 2개, 간결한 모습이지만 왠지 모를 위엄이 서려 있어 좋았다. 이 연이 떠오르면 "통제사령관(이순신 장군)이 오늘 낮 전투를 직접 지휘한다"는 신호였다.

통영 연은 대략 400여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문양과 색깔, 균형미, 세련미의 관점에서 보면 임진왜란 때 통제영(이 군사용어에서 '통영'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산하의 12공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12공방에서 통영부채(대나무와 한지가 주 재료)와 그림을 전문으로 담당했기 때문이다.

To sum up my childhood into two words, it might be "the sea" and "kites" in Tongyeong. Many would agree on the serene lake-like beauty of the sea in Tongyeong, but few know about the kite flying in Tongyeong.

Tongyeong kites were originally used for military signal by Soonsin Lee, the great admiral of the 16th century. My favorite type of kite was "admiral daylight." It is roughly painted black, and has two red circles in the center. The simple kite had something to be called dignity. The original meaning for this kite was "the admiral will command in daylight."

Tongyeong kite has 400 years of history. The name of the city, Tongyeong, was also originated from "the command center" at war. The command center had 12 workshops in which fans made of bamboo tree and Korean paper and pictures were produced. The workshops are also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kites because of its sophisticated beauty of pattern, colors and proportion.

“동네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예쁜 꼬마 연들이~♪………… 풀 먹인 연실에~♪…………

8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노래, ‘연’의 가사처럼 동네 꼬마들이 추운 겨울에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리는 것은 어느 지방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아닌 꼬마들이 모여 직접 연을 만들고, 만든 연도 예쁜 꼬마 연이 아니라 싸움을 위한 큼직한 연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연과 싸우기 위해 연줄에 풀만 먹이는 게 아니라 유리가루를 곱게 갈아 풀과 함께 먹였다는 점에서 노래와는 차이가 있다.

활동사진을 거꾸로 돌려 보듯 지나온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멈춘, 기억 속의 나는 6살쯤이고 골목왈패그룹에선 거의 막내였다. 그 시절 우리 동네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첫 페이지에 묘사된 주인공 싱클레어 동네와 흡사했다. 어두움과 밝음, 선과 악, 조용함과 떠들썩함, 삶의 상반된 두 측면이 공존하는 그런 동네였다. 중2쯤 되는 골목대장(담배를 물고 있었던가. 내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이셨지, 아마도)을 중심으로 치르는 겨울철 중요행사(통영말로 ‘백사까리 먹이기 행사’)가 바로 연실에 유리가루와 풀을 먹이는 것인데, 서열에 따라 맡은 직위가 달랐다. 실을 풀어주는 열레는 서열 4위, 풀을 먹이는 것은 서열 3위, 유리가루를 묻히는 일은 서열 2위인 부두목, 실을 감아 들이는 열레는 당연히 골목대장 몫이었으며 막내였던 내 또래의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깨진 병 같은 유리조각을 모으거나 곱게 빻는 등 주로 허드렛일을 맡았다.

이렇게 풀 먹임이 끝나면 이틀 정도 숙성(실에 풀과 유리가루가 단단하게 묻어나도록)시킨다. 그리고 왈패 간부들은(서열 4위 정도까지?) 싸움을 위한 연을 만들고 연에 문양을 그려 넣었다. 이틀 후 모든 게 완성되면 서쪽 언덕에 있는 배수지로 올라가 다른 동네 왈패그룹과 연 싸움을 벌이는데, 연들은 높이 날아올라 동쪽 벼랑(통영말로 ‘동피랑’ - 지금은 담벼락 벽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위로 휘날리고 연실이 서로 닿을 때 연실을 풀고 감는 기술에 따라 한쪽 연은 목숨을 부지하고 다른 한쪽 연은 실이 끊어지며 장렬하게 전사함으로 싸움은 끝이 났다. 연 싸움이 끝나도 중요한 즐길 거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떨어진 연을 주우러 동피랑을 뛰어다니는 것이었다. 연 떨어지는 방향을 잘 가늠하고 달음박질도 잘 해야 하고 지붕 위로 뛰어오르는 담력도 있어야 해서, 그날 연을 주운 녀석은 주운 연을 들고 다니며 한바탕 무용담을 늘어 놓는데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과 아쉬움 속에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나 그 시절로 돌아 갈래 ……

“Kids of the town forget the cold weather and gathered on the hills to fly kites made by grandpa. Pretty little kites flying with glued threads~”

Like the popular song “kites” in the 80s, we also gathered on the winter hills to fly kites. But what made Tongyeong kites special is that they were big battle kites made by kids themselves, and the threads were not only glued, but fine glass powder were coated to make it stronger.

As I reminisce about the good old days, I was around six and the youngest kid in the group. At that time, my neighborhood in my memory was somewhat similar to the Emil Sinclairs’s village described in the first page of Demian, novel written by Hermann Hesse; the light and darkness, good and evil, quietness and noisiness, two contrary sides of life coexisted in the village. The main event of the winter, led by the gang leader who was about 14 years (who used to hold cigarette in his mouth, but my father was a policeman, haha!), was making glass-powdered thread for kite battles. Each kid had his or her own duty according to the hierarchy in the group. The fourth in the line hold the reel to unwind thread, the third in the line glued the thread, and the second in the line put glass powder on the thread. Naturally, the gang leader used to hold the reel to wind the thread on. Younger kids like me collected shattered glass on the street and powdered it.

After the gluing, the thread was left to dry for two days so the glue and glass powder were well attached to the thread. The higher-ups in the gang group made kite and drew picture on it. After two days, preparation was complete and we all went up to the water reservoir and had a kite battle with another gang group in a neighboring village. The kites were flying high on the eastern hills (Dongpirang in Tongyeong dialect- the hills are now famous for murals), and the skill to unwind and wind the thread determined the winner and the defeated. Even after the battle was over, we enjoyed running around the eastern hills to find the fallen kite. To find the kite, one must have good eye to see the direction, run fast, and have courage to climb the roof. The boy who found the kite that day used to boast a lot, and was envied by all other kids. As I recall my memories, I really wanted to go back to my childhood days....

‘노라조’의 안 노라조 등정기

‘노라조의 첫 등반이다. 우리 ‘노라조’는 이름 그대로 항상 놀러만 다니고 술만 마시러 다닌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하지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수행하게 된 속리산 산행에서 우리는 진정한 단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전 멤버 정상 등정, 그것도 3개조 중 1등으로 정상을 밟겠노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객원멤버인 영어선생 Oyen을 포함하여 총 12명(현유진, 이강우, 김미영, 남정범, 임경진, 장미라, 이정민, 황지혜, 박대현, 최은아, 장하늘, Oyen), 우리는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후, 오늘 실행할 미션, ‘자연으로 유니젠 표현하기’와 ‘쓰레기(등반을 하면서 주운 쓰레기)로 메시지 전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걸어가며 주변에 핀 꽃과 나무를 배경 삼아 삼삼오오 사진도 찍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세심정! 이제 본격적으로 난코스가 시작된다. 우리는 세심정 앞 주점의 노릇노릇한 파전 냄새와 막걸리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했다.

오늘의 일일 대장은 남정범 과장이다. 그는 앞뒤로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며 조금이라도 뒤쳐지는 멤버가 생기면 힘내자며 사기를 북돋았다. 산행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말소리는 줄어들고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늘어났다. 그럴 때 남 대장이 의견을 내놓았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지 않기 위해 산행 도중 인원을 점검하겠다고. 맨 앞의

Norazo's Earnest Mountain Climbing

It was the first mountain climbing of "Norazo." Our Norazo (meaning playing around in Korean) was often criticized of playing around and drinking alcohol as the name implies. By climbing to the top of Mt. Sokri in commemoration of the ECONET's establishment, all members of Norazo pledged to show true unity. Our ambitious goal was to reach the top first among three groups.

A total of twelve members including English teacher Oyen as a guest member (Eujin Hyun, Kang-Woo Lee, Mi-Young Kim, Jeong-Bum Nam, Kyoung-Jin Rim, Mira Jang, Jung-Min Lee, Ji-Hye Hwang, Dae-Hyun Park, Eun-A Choi, Ha-neul Jang and Oyen) took a group photo in front of the entrance and discussed the missions to accomplish of "expressing Unigen with nature" and "conveying messages with trash (trash collected while climbing)" and marched on step by step. While walking, we took photos with the flowers and trees on the background and shared stories, when we no later had arrived at Sesimjeong! The difficult course of the climbing route was going to start now. We shook off the temptation of tasty smell of Korean pancakes and rice wine sold in the bar in front of Sesimjeong and started to climb at full speed.

Today's head was Jeong-Bum Nam. He made sure those who in front and back were climbing well so that no one lagged behind and cheered us. The higher we climbed the less people talked and more heavily we breathed. Then, Nam proposed to check the number of people so that no one fell behind. From

자연으로 유니젠 표현하기 UNIGEN lettered with stones



정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 Group photo at the peak



사람들부터 “일”, “이”, “삼”, …… “십이!” 이 번호가 오늘 산행에서 각자의 고유 번호가 되었다. 산행 중 “숫자!”라는 외침이 들리면 어김없이 “일”, “이”, “삼”, …… “십이!” 혹시라도 중간에 번호가 끊기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전 멤버가 모이면 다시 출발! 식당 사장님께서 정성스레 싸주신 오이와 물, 간식이 지친 우리의 생기를 되찾아주었다.

어느 정도 올랐을 즈음 우리는 미션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다. 일단 둘째 미션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로 쓰레기를 주웠다. 공병, 바나나 껍질, 휴지, 나무젓가락 등등 각종 쓰레기들을 쓰레기 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첫째 미션 사진을 찍을 명당을 발견하고는 작업을 시작했다. 4월이지만 속리산 곳곳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정한 다음, 돌을 모아 유니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U.N.I.G.E.N. 한 글자 한 글자 드러나 드디어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환호하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첫 번째 미션 사진 완성!

작품을 뒤로한 채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지나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며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협력했다.

그렇게 마침내 정상에 도착! 맛있게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문장대 정상에 올라가 사진도 한 방 찍고 문장대 비석 앞에서 단체 사진 한 컷!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사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올라오면서 주운 쓰레기들을 바닥에 펼쳐 ‘NATURE BEST’라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 만들고 보니 알아보기가 약간 어려웠다. 그래도 우리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자위했다.

두 번째 미션사진을 찍은 후 본격적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어서 그런지 올라올 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흐트러지는 감이 있었으나, 그래도 서로 응원하면서 안전을 기하며 하산했다. 오를 때 지나쳤던 세심정에 들러 과전과 막걸리,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산행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모두들 기진맥진 힘이 빠져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산을 정복했다는 기쁨으로 흥만했다.

우리 ‘노라조’에게 이번 산행은 서로 협력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 노는 것만 잘하는 노라조가 아니라 체력도 우수하고 협력도 잘 하는 조임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찍은 미션 사진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힘들 때 서로가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도 깨달았다.

the person at the very front we shouted “One”, “Two”, “Three”, …… “Twelve!” These became our personal numbers. Whenever Nam shouted “Numbers!” while climbing, we shouted “One”, “Two”, “Three”, …… “Twelve!” without fail. If a number was missing, we stopped and looked for the person. And when everyone had gathered again, we started climbing again. The cucumber, water and snacks carefully packaged by the owner of a restaurant refreshed us when tired.

When we had climbed a certain extent, we stopped to take a photo of our mission. First, to prepare for the expression of our second mission, we collected trash. Each one collected in a trash bag all kinds of trash including empty bottles, banana skin, toilet paper, and wooden chopsticks. And then, we found an ideal spot to take a photo of our first mission. Although it was April, there still was snow and ice here and there on Mt. Sokri. Among them, we picked a site and then collected stones to express Unigen. Each letters of U.N.I.G.E.N. were expressed and when it was ready, we acclaimed in unison and started taking photos. As such, we had completed the first photo mission!

Leaving behind our artwork, we again began to advance step by step. As time passed and we got closer to the top we could not breathe comfortably. Then, we encouraged each other and pushed from behind or pulled from the front and encouraged each other so that no one fell behind. Like that we finally arrived at the top! We shared our lunch boxes and took a photo at the top of Munjangdae and a group photo in front of its memorial stone! Then, we gathered to take our second mission photo. We spread out the trashes we had collected on the way and started to create the letters “NATURE BEST.” It was a bit difficult to read it upon completion, but we prided in it being a meaningful artwork.

After taking the second mission photo, we started to climb down. Many were tired that we talked less than when we were climbing up and we had lost some of the strength, but we continued to cheer each other and carefully and safely climbed down. We stopped by Sesimjeong we had passed by when climbing up and filled our empty stomach with Korean pancakes, rice wine and instant cup noodles. And we shared stories of happenings during climbing. Everyone was tired without strength, but we were filled with joy for having reached the top.

For us “Norazo,” this event gave us the opportunity to cooperate and was a very meaningful time. We confirmed that we are not just party animals but people very fit and capable of cooperating well. Looking at the mission photos, we felt gratitude for nature anew and realized how we can help and encourage each other when in difficulty.

에코넷 ECONET

에코넷 명칭 확정

ECONET's name confirmed

2011년 7월 1일을 기해 에코넷홀딩스의 명칭을 에코넷으로 변경합니다. 에코넷홀딩스 미국의 명칭은 에코넷 미국으로 변경합니다. 원래 에코넷은 농장에서 가정까지 수직으로 연결하여 직접 재배, 연구, 제조, 판매하는 우리 기업 네트워크의 강점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우리 기업의 사명을 담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룹니다. 이제까지 에코넷 네트워크를 선두에서 이끌고 후원하는 조직을 기업본부 혹은 홀딩스라 불렀으나 이 조직의 역할과 임무, 대표성을 분명히 하고 실체를 명확히 하며 다른 한편으로 에코넷의 규모와 체계, 위상과 전망을 더욱 뚜렷하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에코넷홀딩스의 이름을 에코넷으로 확정합니다. 아울러 에코넷의 홈페이지 주소도 에코넷 이스트와 웨스트 상관없이 www.econetholdings.com, www.econetholdings.co.kr에서 www.econetglobal.com으로 변경합니다. 동과 서, 전세계를 아우르는 에코넷의 범세계성을 반영한 주소입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 주소도 econetholdings@univera.com에서 econetglobal@univera.com으로 변경합니다.

As of 1 July 2011, ECONET Holdings changed name to ECONET. ECONET Holdings USA. changed to ECONET USA. ECONET was originally the name of our company's business model embracing our mission to vertically connect farms and family through direct farming, R&D, production, and sales in order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based on our company's advantageous network. Until now, we called the organization supporting and leading ECONET's network at the forefront as our company's headquarters or holdings. But to make clear its role, tasks and representation while also making more widely and clearly known the scale, system, status and forecast of ECONET, we have changed ECONET Holdings to ECONET. Further, the homepage of ECONET has changed from www.econetholdings.com to www.econetglobal.com regardless of ECONET East or West. It is an internet address reflecting the global scale of ECONET including East and West. As such the email address of the administrator of our Web site has changed from econetholdings@univera.com to econetglobal@univera.com.

에코넷 창립기념일 행사

Events Held in Commemoration of ECONET's Establishment



올해 한국의 에코넷 창립 35주년 행사는 이병훈 총괄사장의 축사 영상은 공유하면서 각 사마다 따로 진행했다. 에코넷은 3명의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고, 더하여 4월 5일 경기도 남한산성에서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행궁을 관람하고 산성을 답사하는 우리문화유산체험행사를 진행했다.

This year is the 35th year since the foundation of ECONET Korea. The video of the congratulatory address given by Chairman and CEO Bill Lee was shared and each company held events separately on April 5. ECONET awarded three long-term employees. Furthermore, all employees of ECONET experienced a Korean culture relics, when they listened to the explanation of a cultural relics commentator at The mountain fortress wall of Namhansanseong, Gyunggi Province and appreciated the beauty of Haenggung(temporary palace) and mountain fortress.

청강역사관 '비춤' 개관

Opening of the Chungkang History Hall "Bichum"

2011년 5월 11일, 청강문화산업대학은 개교 15주년을 맞아 청강홀 3층에 청강역사관 '비춤'을 개관했다. '비춤'은 세상에 '빛'이 된 청강과 Museum의 'um'을 합친 합성어로 청강 이연호의 유물, 청강문화산업대학 설립과 관련된 자료, 다큐멘터리, 디지털 그림책 등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장 내부에는 청강의 어록을 발췌하여 바닥에 투사하여 관람객에게 청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청강의 나눔과 사랑의 삶을 후학에게 전하는 역할을 자임한 '비춤'은 10월 초까지 청강이 딸 이수형 총장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전시하는 첫 번째 기획전 '사랑하는 딸에게'를 진행한다.

On 11 May 2011, an opening ceremony of the Chungkang history hall "Bichum" was held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in commemoration of the 15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e word, "Bichum" is the combination of "Bich" meaning light that Chungkang (late Yunho Lee) became for the world and "um" of museum. The relics of Yunho Lee, material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documents and digital materials were exhibited in there. In addition, excerpts from Chungkang's quotations were projected on the floor inside the exhibition hall conveying messages of Chungkang to visitors. Fancying as being the conveyor of the sharing and love of Chungkang to younger students, "Bichum" is exhibiting until early October parts of letters Chungkang wrote to his daughter President Soo Hyung Lee as its first temporary exhibition titled "To My Lovely Daughter."

2011년 에코넷 신입사자 교육

2011 New Employees training

에코넷 한국의 신입사자 교육이 2011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에코넷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네이처텍, 유니젠, 물류센터, 청강문화산업대학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9월에 진행한 2010년 2차 신입사자 교육 이후 입사한 신입사자 총 13명이 참석했다. 교육 첫 날 이병훈 총괄사장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에코넷에 대해 설명하고, 신입사자들이 에코넷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교육 마지막 날에 신입사자들은 네이처텍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손가정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The training for newcomers at ECONET Korea was held from 24 to 27 May 2011 for three nights and four days. The training was composed of lectures and visits to Naturetech, Unigen, our logistics center and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ECONET. Thirteen new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after the second training of 2010 held in September 2010 participated.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Chairman and CEO Bill Lee explained about ECONET as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and a company working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He encouraged the new employees to work hard with passion as a member of ECONET. In addition, on the last day of training, the new employees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to help famil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held by Naturetech for a very meaningful time of practicing services and sharing.



네이처텍 임진희 대리, 에코넷 최우수 방법지 수상

Assistant Manager Jinhee Im of Naturetech Awarded as the Person with the Most Outstanding Knowledge Method of ECONET



네이처텍 품질보증팀 임진희 대리가 “ICP를 이용한 TiO2 정량시험법의 내부화” 방법으로 에코넷 방법지 컨테스트 에코넷 최우수 방법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50만원의 포상금도 얻는 기쁨을 누렸다. 임대리의 방법지는 기존에 외부기관에 의뢰하던 TiO2 실험을 자체 개발한 시험법을 활용하여 내부화함으로써 시험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기간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른 훌륭한 분들이 좋은 방법지를 해주셨는데, 아줌마가 힘내라고 잘 봐 주신 것 같아요”라며 임대리는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에코넷 방법지 컨테스트에서는 “혈당관리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결과(석미경 과장 유니베라 한국)”, “HPLC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수리비용 절감 사례(이강우 부장, 유니젠 한국)”, “에코넷과 자회사의 공통비용 정산실적의 효과적인 관리방법(김민선 대리, 에코넷)”도 각 사의 최우수 방법지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방법지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수행 활동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에코넷 한국에서는 사내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혁신 마인드를 고취하며 창의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에코넷 전략회의에서 제1회 방법지 컨테스트를 개최했다. 다음 번 최우수 방법지 컨테스트는 7월 전략회의 때 개최할 예정이다.

Assistant Manager Jinhee Im of Naturetech’s Quality Assurance Team won the ECONET’s Most Outstanding Knowledge Method at a contest with the method of “internalizing TiO2 fixed quantity testing method using ICP” and enjoyed a prize of KRW 500,000. Im’s method internalizes the TiO2 testing method personally developed, which had hitherto been commissioned to an external organization, enabling saving on testing expenses and greatly reducing the testing time. This was highly marked by the judges.

Im humbly commented, “Other outstanding people also submitted good methods, but I think I got the prize to encourage me since I am also a housewife.”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of blood sugar managing academy and its outcome (Mikyung Suck, Univera Korea),” “Cases of saving on repair expenses according to HPLC maintenance and repair contracts (Kang-Woo Lee, Unigen Korea),” and “Effective ways of managing the calculation of common expenses between ECONET and subsidiary companies (Minsun Kim, ECONET)” were each awarded the Most Outstanding Knowledge Method of each company and presented at an ECONET Knowledge Methods Contest.

A knowledge method means the knowledge on methods gained from actual accomplishments by applying them in the execution of given tasks to reach the business management objectives. ECONET Korea held the first knowledge method contest on May 25 in order to discover talented creative employees, inspire innovative thinking and stimulate sharing of knowledge in-house. The next Knowledge Methods Contest is planned to be held in July during the strategy meeting.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상주강사 영어교육 프로그램

English Program by a native English Speaker

2011년 4월부터 유니베라 한국은 임직원의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주강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강사는 아일랜드 출신의 코너 오라일리(Coner O'Reilly)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토론토 회의실에 상주하며 유니베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영어 회화 강습을 시행하였다. 매월 말 게시판과 이-메일 등으로 신청자를 받아 스케줄을 공지하여, 월별로 진행한다. 편안한 분위기의 상주강사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회화(informal & casual talk)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과 비즈니스 영어(Business English) 중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한다.

Since April 2011, Univera Korea has run an English training program to improve the English ability of employees. Coner O'Reilly from Ireland is a teacher who teaches every Tuesday and Thursday at the Toronto Meeting Room and provides one-on-one conversation class. At the end of each month, he gathers applicants through the bulletin board or email and draws up his next schedule for them by the month. The program consists of two courses; one is informal & casual talk, the other is presentation and business English. Applicants can take one course.

유니베라와 힐탑가든, 블로그 및 페이스북 사이트 개설

Univera and Hilltop Gardens Open Blog and Facebook Sites

5월 초 유니베라는 고품격 자연주의 화장품, 힐탑가든을 출시함과 동시에 30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인 온라인에서 힐탑가든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힐탑가든 블로그와 마이크로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또한 유니베라 블로그에 이어 5월 말, 공식 페이스북도 개설하였다. 에코네시안의 축하와 격려를 부탁한다.

유니베라 블로그 : http://blog.naver.com/univera_kr/

힐탑가든 마이크로사이트 : <http://www.hilltopgardens.co.kr/>

힐탑가든 모바일 사이트 : <http://m.hilltopgardens.co.kr>

유니베라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univerakorea>

Univera launched high-quality nature-oriented cosmetics of which the brand name is "Hilltop Gardens", and opened a Hilltop Gardens blog, a micro site and mobile site in early May in order to enhance the image and raise awareness of the products on online where people in their 30s are most active. In addition to the Univera blog, it opened an official Facebook site at the end of May. Univera Korea asks ECONETians to congratulate and support these initiatives.

Univera blog: http://blog.naver.com/univera_kr/

Hilltop Gardens micro site: <http://www.hilltopgardens.co.kr/>

Hilltop Gardens mobile site: <http://m.hilltopgardens.co.kr>

Univera Facebook: <http://www.facebook.com/univerakorea>



연구소 국책사업 진행

Research Center to Work on a Government Project

유니베라 연구소는 생리활성 소재를 기반으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한다. 연구기간은 2011년 5월부터 59개월간이다. 우리나라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발굴한 유용 자생식물자원으로 웰니스 식품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여 웰니스 헬스케어(health care) 시장을 선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유니베라 연구소는 친환경과 웰니스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맞춤형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The Institute of Life Sciences of Univera will work on a government project titled "Next generation eco-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develop functional products based on menstruation activating materials. The project will last for 59 months from May 2011. Our goal is to lead the health care market by developing wellness food materials and products with discovered useful wild plant resource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future, the Institute of Life Sciences of Univera will aim at developing custom-tailored materials and products in line with the current trends of pursuing eco-friendly and healthy functional products to lead the Korean and global market.

TV 프로그램, 알로에 소개

The TV Programs about Aloe Televised



SBS의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4월 8일과 19일)와 <모닝와이드>(4월 25일과 5월 2일)에서 알로에에 대해 방송하였다. 이렇게 방송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니베라 마케팅기획팀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3월부터 유니베라 마케팅기획팀은 알로에의 효능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와 함께 유니베라의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찾던 중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인 SBS의 <생방송 투데이>와 <모닝 와이드>를 만나게 되었다.

이번 방송은 알로에와 알로에 제품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제공하는 중에 노원제일대리점과 네이처텍, 유니베라 연구소, 이음 F&B 등 에코넷과 계열사를 비롯해 유니베라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였다.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김재수 PD는 "알로에의 효능이 그렇게 많은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료수지, 그저 피부에 바르면 좋지,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장 기능 개선, 피부재생, 노화 방지같이 여러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유익한 정보였다는 시청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SBS broadcast aloe in their programs "Live Broadcast Today" (April 8 and 19) and "Morning Wide" (April 25 and May 2) in which Univera was exposed. They could be televised through the hidden efforts made by the marketing planning team of Univera. From March, the team was looking for TV programs to highlight the effects and advantages of aloe and publicize Univera's products when they fell upon the "Live Broadcast Today" and "Morning Wide" programs of SBS focused on providing information useful to viewers.

While the programs provided useful and fun videos of aloe and its products, they naturally introduced Univera's products and those of ECONET subsidiary companies such as Nowonjeil Distributor, Naturetech, Univera research center and Eum F&B. It was a prime opportunity to make our work widely known.

Producer Jae-su Kim of the programs said, "I did not know before that aloe had so many effects. I thought it was just a drink and good for the skin.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it has the effects of improv-

ing the intestines, reviving the skin, and preventing ageing. After the programs were broadcast, many viewers called saying they were very useful information. I am proud to have provided good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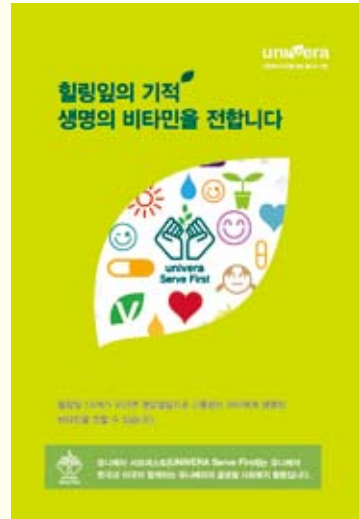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 “Healing Leaf’s Miracle” Campaign

유니베라는 6월 1일부터 전세계 영양결핍 아동을 위한 국제구호단체인 비타민엔젤과 함께 나눔 캠페인 ‘힐링잎의 기적’을 시작했다. 매년 전세계에서 태어나는 5세 미만 아이들의 3분의 1이 영양결핍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중 2천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필수영양소만 공급해도 사망률의 23%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유피가 유니베라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전세계 영양결핍 아이들에게 생명의 비타민을 전달하는 데 쓰일 것이다. 유니베라가 적립하는 기금은 힐링잎의 개수로 산정하고 앞으로 제품별로 패키지에 표시할 예정이다. 더 많은 힐링잎이 모여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From June 1, Univera started joining the “Healing Leaf’s Miracle,” a sharing campaign of Vitamin Angel,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to help malnourished children around the world. One third of children under five born worldwide suffer from malnutrition and are on the verge of dying. Among them, about 20 million children lose their lives. If only essential nutrients were provided to these children, the death rate could drop by 23%.

Whenever UPs give Univera products to our clients and they buy the products, donation accumulates and is used to provide vitamins to save malnourished children worldwide. The donation accumulated by Univera is calculated into a number of healing leaves. We plan to print the number on the packages of our products. We hope more healing leaves will be collected to save more children.



네이처텍 Naturetech

네이처텍 연구개발팀, 랩 세미나(Lab Seminar) 개최 Lab Seminar of Naturetech’s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Held

네이처텍은 5월 26일 네이처텍 강당에서 중앙연구소 정기 랩 세미나(Lab Seminar)를 열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니젠 연구소장인 치 박사(Dr. Qi)가 유니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소재(미백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UP302(Nivitol), Bakutrol, UniFlavon 등) 개발현황을 발표했고 신동혁 연구위원이 Body Slim (Anti-Cellulite)에 효과가 있는 개발 소재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병훈 총괄사장을 비롯해 네이처텍 성한용 사장, 에코넷 조태형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Naturetech held its regular lab seminar of the central research center in the Naturetech auditorium on May 26. During the seminar, the Chief Scientific Officer, Dr. Qi, presented the projects currently conducted by Unigen and the state of development of materials (UP 302 [Nivitol] with outstanding whitening effect, Bakutrol, UniFlavon, etc.). Director of Natural Product Development DongHyeok Shin gave a presentation on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effective for body slimming (anti-cellulite). Chairman and CEO Bill Lee, President HY Sung of Naturetech and COO Taehyeong Jo of ECONET participated in the seminar among others.



TGA 재인증 성공

Successful TGA Recertification

네이처텍은 5월 27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호주 식약청)로부터 지난 2011년 2월 24일, 25일, 28일에 진행된 재인증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음을 통보 받았다. 이번 실사는 지난 2010년 2월에 진행된 실사의 사후 개선사항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제조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적합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되었다. 새로운 TGA 인증서는 7월 중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효기간은 2~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네이처텍은 시장확대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aturetech was informed on May 27 by the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the drug and food administration of Australia, that it had successfully passed the recertification due diligence process conducted on 24, 25 and 28 February 2011. The auditing was conducted to check whether we were abiding by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and implementing the items demanding improvement as a follow-up to the auditing in February 2010. Because the result was good, we were issued a certificate again. We expect to receive the new TGA certificate in July and its expiration date is expected to be extended for another two to three years. Through the reissued certificate, Naturetech is able to confirm again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market.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유니젠 창립기념행사

Event Commemorating Unigen's Foundation

4월 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유니젠 전임직원은 창립기념행사로 속리산을 등반했다. 산행은 3개의 멘토링 활동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10시 30분 강현우 팀장의 구령에 맞추어 몸풀기 체조를 한 후 점심식사용 도시락과 물을 받은 전임직원은 문장대를 향해 출발했다. 전임직원이 정상에 함께 오르자는 취지에서 각 조별로 단체사진과 유니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산행후기를 제출하라는 미션이 주었다. 미션사진과 산행후기는 임원 심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조에게 1등의 영광이 돌아갔다. 전임직원이 산행후기를 공유함으로써 조별마다 있었던 에피소드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In commemoration of the foundation of Unigen, all employees of Unigen in Korea went climbing on Mt. Sokri on April 5. The climbing was conducted in three mentoring teams. They stretched at the shouting of Team Leader Hyun-Woo Kang at 10:30 a.m. and then lunch boxes and water were distributed to all, who started climbing toward Munjangdae. Each team was given the missions of taking group photos that could show well Unigen and write their impressions, which were aimed at encouraging everyone to reach the top. The honor of winning with the highest score based on the evaluation by judges of the mission photos and essays written on the event fell on team two. All employees shared their essays from which one could learn the episodes and hardships faced during the day's event.

'제 22차 세계 피부과 학회' 참석 및 업체와의 교류

Participated in the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and Exchanged with Companies

'제22차 세계 피부과 학회(the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가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피부과 학회는 세계 10대 국제회의 중 하나로서 올해로 122년의 역사를 자랑한

다. 320여 개의 학술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열리고 강연자만 해도 1,200여 명에 달한다. ‘혁신적 피부 과학을 통한 세계적 교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총 120여 개국, 2만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유니젠에서는 치 지아 박사, 표창민 상무, 현유진 박사, 신동혁 박사, 이영철 박사, 리디아 브라우넬(Lidia Brownell)가 참가했다. 중국의 피부과 학회 관계자(Dermatologists)와 유니젠 협력업체인 에스티 로더 사의 연구책임자가 동행했다. 이들은 학회에 참석하기 전, 5월 24일 병천에 위치한 유니젠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둘러 보고 유니젠이 생산하는 Nivitol, Bakutrol, Univestin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The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was held in COEX, Seoul, from May 24 to 29 for six days. The congress is one of the top 10 international conferences boasting of 122 years of history this year. About 320 academic symposia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1,200 lecturers only. Held under the theme of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Innovative Dermatology,” the congress had about 20,000 people from about 120 countries participating.

Dr. Qi, Chang-Min Pyo, Eujin Hyun, DongHyeok Shin, Young-Chul Lee and Lidia Brownell participated from Unigen. Dermatologists from China and the head of research of Unigen’s partner company Estee Lauder joined them. Before participating in the congress, on May 24 they visited Unigen’s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located in Byeongcheon and showed much interest in the Nivitol, Bakutrol, and Univestin produced by Unigen.



유니젠 내부시설 개선

Improvement to Unigen’s Internal Facilities

유니젠은 4월 천연물연구팀의 실험실을 개선하였다. 실험실의 업무 흐름에 따라 장비와 도구들을 재정리하였다. 또한 1 ton scale의 pilot 설비가 있는 추출/농축실도 방폭 및 환기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로써 추출과 농축을 위해 스팀을 이용할 때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압력증가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재정비되었다. 또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증기로 배출될 수 있는 유기용매 및 열기나 습기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Unigen improved the lab of the Natural Product Development in April. The equipment and tools were reorganized in tandem with the flow of work in the lab. In addition, an explosion proof and ventilation systems were added to the extracting and concentrating room where pilot facilities of a scale of one ton are located. As such, a system was reinstalled to prevent explosion that can happen when pressure rises from using steam for extraction and concentration. In addition, a ventilation system was installed to remove heat, humidity and organic solvent that can be emitted.

광역과제 성과보고회

Meeting to Report Achievements of Research Projects

6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광역과제 성과보고회가 있었다. 유니젠은 천연물 분야의 부스에 개발 제품 및 홍보용 판넬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주관하는 성과보고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자리이다.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프로젝트 수행기업 대표 등 과제 주관·참여 기관장 등 5백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From June 1 to 2, a meeting to report achievements of research projects was held in the Korea Trade Exhibition Center, Daejeon. Unigen produced panels to publicize and exhibited in its booth products developed in the area of natural goods. Hos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as well as organized by the Chungcheong Leading Industry Development for Economic Region, the meeting was aimed to present and publicize achievements made by leading industr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as core national tasks. About 500 people related to the meeting participated, including the first vice-minister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eads of local governments, national assemblymen, representatives of companies executing the projects, and heads of organizing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에코넷 USA ECONET USA

마툴과 힐탑가든 상품 전시회

Matol & Hilltop Gardens Mini Product Expo – April 20

4월 20일, 레이시의 에코넷 미국 본사 직원들은 마툴과 힐탑가든 상품 라인을 소개하는 샘플링 행사에 참여했다. 유니베라 경영지원본부 직원들이 행사를 주관했다. 점심시간 동안 직원들에게 마툴의 다이어트 제품과 힐탑가든의 생활용품 샘플을 제공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마툴과 힐탑가든 상품들을 체험해 보았다. 유니베라 컨설턴트인 Amron Bevels-Wilson 박사는 마툴 다이어트 상품의 장점과 사용방법을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품질보증/품질관리/법무팀장인 Sharon Majewski, 품질관리팀원인 Jordan Bruner가 상품을 전시하고 직원들에게 상품의 특징에 대해 교육했다. 상품 체험을 마친 후 직원들은 마툴과 힐탑가든 상품라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체험담을 제출했다.

Employees at the ECONET US Headquarters located in Lacey, had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a live product sampling event to showcase the Matol & Hilltop Gardens product lines. Members of the Univera Operations Department hosted this event and provided samples of the Matol Diet and Hilltop Gardens Bath and Body product lines to employees during lunch time. The Mini Product Expo was a success as employees gathered around and sampled the new Matol and Hilltop Garden products. Dr. Amron Bevels-Wilson, a Univera Consultant, thoroughly discussed the benefits and “how to’s” of the Matol diet with employees. Sharon Majewski, Director of QA/QC & Regulatory, and Jordan Bruner, QC Compliance Specialist, manned the product sampling table while educating employees on the product specifics. After sampling, employee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ir feedback through a “Product Experience” survey to ensure the Matol and HTG product lines are satisfyingly fulfilling the expectations of our employees.

‘상 이상의 상’ 프로그램

Above and Beyond Award Program

서번트 리더십은 에코넷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핵심 철학이다. 이는 먼저 남을 섬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유래한다. 섬김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이다. 이러한 회사의 핵심 경영철학을 강력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에코넷 회사들은 ‘상 이상의 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6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기대 이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봉사한 직원을 추천할 것을 권유 받았다. 섬김의 행위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고마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6주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직원들은 추천 직원의 이름과 섬김 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어 인사팀에 제출했다. 제출된 명단으로부터 인사팀 직원들이 매주 무작위로 수상자를 뽑았다. 수상자에게는 섬김 우선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카드를 주었다. ‘상 이상의 상’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 직원들에게 동료들의 섬김 우선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었다.

Servant-leadership is a core philosophy of our company that applies to all positions within our organization and begins with the natural feeling of serving others first. The servant-first approach focuses on making sure that serving others is our highest priority. To help support and strengthen this core company philosophy, the US and Canadian ECONET family of companies introduced the "Above and Beyond Award Program". This was a six (6) week program that began on May 9th and concluded on June 19th. During this time, employees were encouraged to recommend employees whose acts of service went above and beyond what was expected of the employee in his/her position. The servant-first act could have been small, mid-size, or large as they are all important and appreciated.

During this six (6) week program employees submitted their recommendation to HR which included the employee's name and a short summary paragraph of the employee's Above and Beyond servant-first act. Each week, HR would randomly draw a winner from the weekly submissions. The weekly winner received a gift card to reward his/her servant-first act.

The Above and Beyond Award Program provided the US and Canadian employees with a great opportunity recognize their fellow employees servant-first 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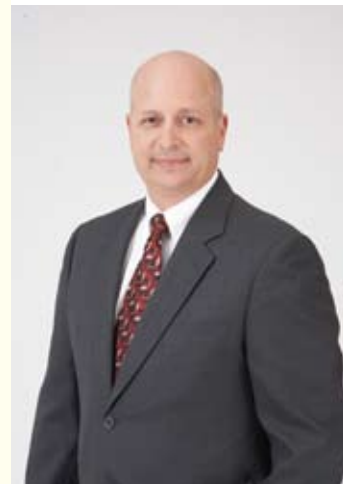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랜디 반시노, 유니베라 신임 사장으로 취임

Randy Bancino joined Univera as a new President

6월 6일, 랜디 반시노가 유니베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랜디 사장은 직접판매 분야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2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회사인 매나텍 인터내셔널 (Mannatech International)의 사장이었다. 매나텍 재임 기간 중 랜디는 회사의 국제 조직망을 거의 두 배로 확장시켜 21개국에 진출했다. 랜디는 판매와 조직 확대 정책을 앞장서서 강하게 밀어 부쳐 국제 비즈니스의 수익을 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랜디는 암웨이에서 16년 이상을 근무했고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 5번 승진했다. 암웨이에서 그의 마지막 직책은 판매마케팅과 고객지원 부문 부사장이었다. 일선 판매 조직과 끈끈한 유대관계로 유명한 랜디는 연간 1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암웨이 북아메리카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랜디는 Profitable Growth Partners 사, BDO Seidman사, Electronic Business System사의 임원을 역임했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활동했다. 랜디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경영학 석사와 그랜드밸리 주립대학의 컴퓨터공학 학사이다.

On June 6, Randy Bancino joined Univera as our new President. Randy has had a very impressive career in direct selling, including his most recent position as President of International with Mannatech, a publicly traded, global wellness company with sales of more than \$200 million. During Randy's tenure at Mannatech he was responsible for nearly doubling their international footprint to 21 countries. Randy drove their international sales and recruiting strategy, and more than doubled the profi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at its leader. Randy spent over 16 years with Amway and was promoted five times during his Amway career. His last position with Amway was as Vice President, Sales, Marketing & Customer Support. Known for build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field force, Randy was responsible for all of the customer facing activities for Amway's North American business unit with annual sales of \$1.1 billion dollars. Randy has also held impactful leadership positions with Profitable Growth Partners, BDO Seidman, Electronic Business Systems, and was an adjunct professor a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Randy has a MBA fro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and a BS



Computer Science from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MBA fro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and a BS Computer Science from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유니베라 캐나다 Univera Canada

켄 레이드, 유니베라 캐나다 법인장 취임

Ken Reid joined Univera Canada as a General Manager



5월 2일, 켄 레이드가 유니베라 캐나다의 신임 법인장으로 취임하여 몬트리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켄은 직접판매업계에서 거의 30년간 방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그는 세계 500대 회사 중 하나로 Fortune지에 소개된, 5억 달러 이상 판매실적을 기록한 Shaklee사에서 국내판매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또한 그는 Avon Canada사의 Premier 부문(온타리오)과 Sunrise 부문(대서양 연안 캐나다와 뉴펀드랜드)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는 Avon사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재직기간 중 3번이나 승진했다. Avon사와 Shaklee Canada사에서 근무한 경험 이외에도, Ken은 Immunotec Research사, Canada Direct사, Excel Telecommunications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McGill대학에서 유통을 전공했다.

Ken Reid joined the company on May 2 as General Manager of Univera Canada and is located at our Montreal office. Ken has nearly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Direct Selling extensive experience in the MLM industry. Recently, Ken was the National Sales Director for Shaklee a Fortune 500 global company with sales of \$500 million. During Ken's career, he was also employed by Avon Canada and was the Division Sales Manager for their Premier Division (Ontario) and their Sunrise Division (all Atlantic Canada and Newfoundland). He was employed with Avon for over 16 years and was promoted three times during his tenure. In addition to Avon and Shaklee Canada, Ken held senior leadership positions with Immunotec Research, Canada Direct, and Excel Telecommunications. Ken attended McGill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Commerce.

유니젠 러시아 Unigen Russia

러시아 농장 사무실 개축 준공

Reconstruction of the Farm Office in Russia



5월 18일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초카노프 마을에 있는 러시아 농장 사무실을 개축 준공하였다. 농장 사무실은 지난 2월 12일에 강풍에 의한 누전으로 화재를 당해 컨테이너 사무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러시아 법인이 교체된 후 처음 발생한 사고라 모두 당황하였으나 곧바로 수습에 착수하였다. 피해 입은 문서들을 복구하고 아울러 농장 직원들로 건축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건축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5월 18일, 건축을 시작한 지 30여일 만에 이전 컨테이너 사무실이 갖고 있던 문제들까지 개선한, 편리함과 안전함을 갖춘 새 사무실을 준공하였다.

The farm office located in Chkhanov, Kraskino in the Maritime Province, Russia was reconstructed on May 18. The farm office was destroyed by a fire occurred by electric leakage caused by strong wind on February 12. The container office incurred the damage of being totally destroyed. Fortunately, there were no human casualties. It was the first accident after the Russian office team was replaced. Thus, everyone was taken aback, but soon undertook to recover the situation. They restored damaged documents and further formed a construction team with the farm employees to start constructing themselves. As such, a new office was constructed with added improvements and comfort on May 18, 30

days from starting the construction.

러시아 농장, 봄 파종 시작

Spring Sowing Started in the Russian Farm

러시아 농장은 5월 21일부터 봄 파종을 시작하여 5월 말 현재 콩 170ha, 황금 40ha를 파종했다. 목표 대비 각각 55%, 80%를 파종했고 이대로라면 6월 중순까지는 순조롭게 파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비가 와서 파종을 못 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파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가 늦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 동안 러시아 법인과 농장은 새 사무실 건축과 영농 준비에 집중하였다. 다행히 작년에 콩을 수확한 후 금년에 재배할 대부분의 밭을 미리 갈아놓은 덕분에 비가 그친 5월21일부터 바로 파종을 시작할 수 있었다.

The farm in Russia started spring sowing on May 21 and sowed by the end of May 170ha of beans and 40ha of SCUTELLARIA BAICALENSIS. They sowed 55 and 80 percent, respectively, of their goal and at this rate, the sowing is expected to be completed smoothly by mid-June. The Kraskino region in the Maritime Province, Russia has not been able to sow because rain poured almost every day from April 21 to May 20. They can't sow while it rains and farming may be delayed, which is a concern. In the meantime, the employees in Russian office and farm concentrated on reconstructing the office and preparations for farming. Because they had plowed in advance the fields after the harvesting of beans last year, they could start sowing right away fortunately on May 21 when rain stopped.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힐탑가든 프로젝트 출범

Commencement of Hilltop Gardens Project

힐탑가든은 단순히 일하는 농장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힐탑가든은 알로에 농장의 효시로서 알로에 상품개발을 위한 실험실이었고 식물의 치유 효과를 깨친 사람들이 알로에 베라를 사러 오는 곳이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힐탑가든은 에코넷과 힐탑가든의 주도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다.

수년 동안 준비한 힐탑의 치유의 정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 Land Design Partner사가 설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정원이 조성될 것이다. 올해 개장 예정인 1그룹 정원은 테마 형 정원이어서 치유 개념을 반영하여 치유 정원(Healing Garden), 오감 산책로(Sensory walk), 알로에 기념 정원(Memorial Aloe Garden), 어린이 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원래의 농장 건물을 본떠 1940년 양식으로 짓고 있는 건물을 방문객 센터로 쓸 것이다. 이 건물에서 자연의 신비를 깨친 방문객들이 숙박할 것이다. 이월드 하우스(Ewald House)가 있던 자리에 5월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연말쯤이면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힐탑은 부지 남쪽에 새 길을 닦고 있다. 이 길은 어린이 정원으로 사라지게 될 남쪽 길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이 끝나면 힐탑가든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첫 번째 행사로 힐탑의 첫 알로에 농작물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행사에는 전국의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들을 초대할 것이다. '알로에의 역사적 고향'에 어소시에이트로 오는 사람들, 에코넷의 유기농장을 보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또는 치유 정원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햇볕을 만끽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전하기 위해 힐탑은 존재할 것이다.

Hilltop Gardens has always been more than just a working farm. From its earliest history as an aloe farm it also served as a laboratory for development of aloe products and as a place where people who



were enlightened enough to know the value of plant based healing would go to buy Aloe vera. Now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ECONET and Hilltop Gardens, Inc. it will bloom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The healing gardens at Hilltop that have been in the planning stages for several years are now under construction. The overall master plan designed by Land Design Partners has been phased and will be built over a number of years. The Group 1 gardens slated for opening this year are themed gardens that will begin to express the healing aspects of the design. The new gardens include the Healing Garden, the Sensory Walk, the Memorial Aloe Garden, and the Children's Garden.

A new house styled after the original farm house will serve as our interim visitor center. It will have 1940's feel but will be able to accommodate the most tech savvy visitor. This new construction which began in May is being built on the site of the original Ewald house and will be ready for visitors by year's end.

A final bit of new construction at Hilltop is a new road around the south side of the compound. This road will replace a road around the north side that will disappear with construction of the Children's Garden.

With the completion of this phase Hilltop Gardens will open to the public. The first scheduled event will be centered on the harvest of Hilltop's first virgin aloe crop. It will be attended by Univera associates from all over. Whether you come as a company associate to the "historical home of aloe" or to see ECONET's organic farm or to bask in the beauty and serenity of the healing gardens; Hilltop will be here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and you.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창립기념 봉사활동

Founders Day Community Service at the Ronald McDonald House



2011년 4월 5일, 힐탑가든의 직원들은 텍사스 주 할링겐의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할링겐 병원의 소아과 병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병원에 자녀를 입원시키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베아트리지츠는 4명의 봉사요원들과 함께 비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당장 청소가 필요한 욕실을 갖춘 6개의 침실, 2개의 거실, 하나의 TV실, 식당과 주방을 담당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하면서 창 안쪽과 바깥쪽까지 세심히 청소했다. 몇몇 가구들은 페인트칠도 했다.

폴은 7명을 데리고 왔는데, 주로 밖의 일을 담당했다. 나뭇가지를 치고, 제초기를 돌리고, 보도를 가다듬고, 울타리를 손질하고, 화단작업을 하고, 스프링거 시스템을 고쳐 작동시켰다. 그들이 정원 손질을 마치자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전혀 새로운 장소처럼 보였다. 환아 가족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얻기를 바란다.

On April 5th of 2011 the crew from Hilltop Gardens spent a day of Community Service at the Ronald McDonald House in Harlingen, Texas. The Ronald McDonald House is located right across the street of the Pediatric Wing of the Hospital in Harlingen and they provide Rooms and Meals for families that have a sick child in the Hospital.

Beatriz had here crew of 4 really moving. They had 6 bed rooms with bath rooms, 2 living rooms, 1 TV room, a dining room, and a kitchen and all of them were in desperate need of a good cleaning. Vacuuming, mopping, washing, and dusting throughout the house, they even did the windows both inside and out. They also painted a few items as well.

Paul his crew of 7 guys going outside as well. They were trimming trees, running weed eaters, edging sidewalks, trimming hedges, working all of the flower beds and getting the sprinkler system back up and running. By the time that the guys were finished the yard around the Ronald McDonald House looked like a new place. We hope family will be relaxed and emotionally healed by looking at beautiful garden.

네이처텍 창립기념일 행사, 조령산 등반

Event to Commemorate the Foundation of Naturetech, Climbing Mt. Joryeong



① 문경새재를 넘어며 Going over Mt. Joryeong
② 등산 중 시원한 폭포 앞에서 Group photo at the fall
③ 단체사진 Group photo at the gate of Mt. Joryeong

네이처텍 전 직원은 4월 29일, 창립기념일 행사를 겸하여 조령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조를 나누어 단합대회와 사진촬영 미션 등으로 진행한 조령산 등반은 6.5km에 이르렀다. 등반을 마친 후, 막걸리를 곁들인 전체 회식에서 직원들은 보물찾기로 획득한 경품을 수령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Naturetech people climbed Mt. Joryeong on April 29 as an event to commemorate the foundation of Naturetech. Naturetech employees, divided several teams, reconfirmed the unity and took pictures during climbing for 6.5 km. After the climbing, they enjoyed rice wine and a tasty meal and some of them received prizes acquired from treasure hunting.



유니베라 한국 창립기념일 미니운동회



2011년 4월 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유니베라 전직원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미니운동회를 열었다. 미니운동회는 영보드 3기 직원들이 아이디어 팩토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한 것이다. 홀수 사번과 짝수 사번, 둘로 팀을 나누어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을 즐겼다. 전직원은 이음이 제공한 특제 도시락으로 맛난 점심을 먹었다. 모두들 밝은 웃음과 신나는 응원으로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운동회를 마친 후 전직원은 2011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유니베라 로고가 예쁘게 새겨진 떡케이크를 자르는 이벤트를 가졌다.

- ① 단체달리기 Group race
- ② 유니베라 골든벨 Quiz game
- ③ 탑쌓기 Erecting a tower
- ④ 유니베라 생일 떡케이크 Rice cake to commemorate the foundation of Univera
- ⑤ 단체줄넘기 Rope-skipping
- ⑥ 커플달리기 Couple race
- ⑦ 단체사진 Group photo



Mini Sports Day in Commemoration of the Foundation of Univera Korea

All Univera Korea employees held a mini sports day on 5 April 2011 in the futsal stadium of the Seoul Children's Grand Park in commemoration of its foundation. The mini sports day was planned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idea factory by members of the third class of Young Board. The employees were divided into two teams of odd and even company numbers and enjoyed playing various games and programs. All employees enjoyed eating a special tasty lunch provided by Eum. Everyone enjoyed the day smiling brightly, cheering with excitement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games. Afterwards, everyone pledged to achieve the 2011 goals and held an event of cutting a rice cake on which Univera's logo was imprinted.



에코넷웨이 퀴즈 ECONETWAY Quiz

힐탑가든 브랜드는 성장과 방어 에너지를 담은 ○○○○○, 구기자, 비트, 콜리플라워, 딜, 서양호박 등에서 추출한 성분(Botanical Juice, 5-colors Botanical Extracts)을 사용하여 식물이 간직한 근원의 힘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The Hilltop Gardens brand uses ○○○○ ○○○○with such defensive and growth energy but also five-colors botanical extracts of wolfberry, beet, cauliflower, dill and pumpkin to convey the original power inherent in plants. What should be in ○○○○ ○○○○?

각사의 에코넷웨이 기자단 또는 에코넷웨이 편집실 (minsun@namyangglobal.com)로 정답을 보내 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선물로 베라스파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Please send the answer to the editing room of ECONET Way (E mail minsun@namyangglobal.com) or to ECONET Way reporters in each company. We will cast lots to see who can be given Vera Spa Hand Cream as a gift among those who answer correctly.

Last Issue's Winners

Q : 에코네시안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회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 실행하기로 한 것'
A : ECONET 8 Rules of Engagement

Q: What is "It" which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enhance execution and build productive meeting culture as a part of the above-said efforts?
A : ECONET 8 Rules of Engagement

방상학 대리 | 유니베라 한국
이영철 부장 | 유니젠 한국

Sanghak Bang | Univera Korea
Young-Chul Lee | Unigen Korea

● 에코넷웨이 35호를 보고

『에코넷웨이』는 에코넷의 역사적 순간을 충실히 담아내는 역사적 기록이자 에코네시안의 소통의 채널로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길이 되고자 합니다.

『에코넷웨이』를 보고 느낌 소감이나 비평, 혹은 에코넷과 『에코넷웨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마련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Readers' opinions about the vol. 35 of ECONETWAY

ECONETWAY is a record of historical moment of ECONET, and also a communication channel of ECONETians.

We want to make the way for upholding the value of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For those who send their thoughts after reading ECONETWAY, and those who advise on the rightful course of ECONETWAY, we always welcome the opinion of readers, and will send small gifts for them.

Please send your opinion to the reporters of ECONETWAY or to ECONETWAY Editorial Office.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 정정 알림 Notice: Correction

에코넷웨이 34호에서 아래의 내용을 정정하여 알립니다.

We amend the content of no. 34 below of ECONETWAY.

Page 25 의 사진 캡션 영문 수정

Amended photo caption in English on page 25.

Organic plants of Cilantro, Dandelion and Beet

→ Organic plants of Methi Leaf, Dandelion and Beet

〈에코넷 글마당 1〉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Page 58~59)에 사용된 사진 촬영자 누락

사진 이보수 대리 | 천연물연구팀 | 유니젠

Delete photographer used on 〈Literary Space 1〉 "Knitting a Hat for a Newborn Baby" (pages 58-59).

Photography by Bosu Lee Assistant Manager | Natural Product Development Team | Unigen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모든 어른을 부모같이, 모든 아이를 자식같이
The Elderly as our Parents, All Children as our Own

에코넷 ECONET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65, Fax: +82-2-467-9988
www.econetglobal.com

에코넷 USA ECONET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300, Fax: +1-360-413-9185
www.econetglobal.com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100 Lee Lane
Lyford, TX 78569, USA
Tel: +1-956-262-2176, Fax: +1-956-262-2487

네이처텍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50, Korea
Tel: +82-43-532-5144, Fax: +82-43-532-5328
www.naturetech.co.kr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500, Fax: +1-360-413-9150
www.us.univera.com

알로콥 미국 Aloecorp USA (Headquarter)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400, Fax: +1-360-413-9185
www.aloecorp.com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3100, Fax: +82-2-463-9162
www.univera.com

유니베라 캐나다 Univera Canada

290 Labrosse Ave.
Point-Claire/Montreal
Quebec, Canada H9R 6R6
Tel: +1-514-426-2865, Fax: +1-514-693-3425
www.univeracanada.com

알로콥 멕시코 (생산) Aloecorp Mexico (Farm & Operations)

Aloecorp de Mexico
Carretera Tampico-Mante km 89
Gonzalez, Tamaulipas, Mexico 89700
Tel: +52-836-273-2146, Fax: +52-836-273-2146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82-41-529-1510, Fax: +82-41-529-1599
www.unigen.net

유니젠 미국 Unigen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200, Fax: +1-360-413-9135
www.unigen.net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만녕사무실 / Wanning Office / 万宁办公室
海南省萬寧市禮紀鎮茄新村 南洋蘆薈基地 郵編 : 571529
Hainan Aloecorp, Jiaxin Village,
Liji Town, Wanning, Hainan, China, 571529
Tel: +86-898-6258-5078 FAX: +86-898-6258-5018
http://www.aloecorp.com.cn

유니젠 러시아 Unigen-Russia Co., Ltd.

Office 707, Prospect Kranogo Znameni 59,
Vladivostok, Primorsky territory, Russia.
Tel: +7-4232-30-2886, Fax: +7-4232-43-17-78

ECONET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